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민정

#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Grounded theory study about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 with disabilities.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민 정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민 정

## 최민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택호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승아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권해수 (인)</u>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6

## II. 이론적 배경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	7
1. 장애대학생 현황 .....	7
2. 장애대학생의 진로발달 .....	9
a. 사회심리이론 .....	9
b. 진로의사결정 사회학습이론 .....	9
c.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	11
3.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 .....	12
B. 근거 이론 .....	13
1. 근거 이론 .....	13

## I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	16
B. 근거 이론 .....	16
C. 연구 절차 .....	18
1. 연구 참여자 선정 .....	18
2. 연구 참여자 특성 .....	18
3. 자료수집방법 .....	20
a. 면담 질문지 작성 .....	20
b. 면담 실시 .....	21

4. 자료분석 .....	22
5. 자료분석의 타당성 평가 .....	24

#### IV. 연구 결과

A. 개방코딩 .....	26
B. 축코딩 .....	90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	90
2. 과정분석 .....	94
C. 선택코딩 .....	96
1. 핵심범주 : 장애 정체감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 .....	96
2. 이야기 윤곽 .....	97
3. 장애대학생 진로준비 과정의 유형 .....	99
a. 가설적 정형화 .....	99
b. 가설적 관계 진술 .....	100
c.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유형 .....	101

#### V. 논의 및 결론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논의 .....	105
B.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논의 .....	112
C. 의의 및 제한점 .....	114
참고문헌 .....	116
부록 .....	124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19
<표 2> 면담 질문지 .....	20
<표 3>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	26
<표 4>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	99
<표 5>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 .....	100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91
<그림 2> 면담 질문지 .....	96
<그림 3>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	102



## ABSTRACT

A Grounded theory study about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 with disabilities.

Choi Min Jung

Advisor : Prof. Kwon Hae-soo,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what process is passed through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to prepare their future career and to lead to evidence for developing consultative solutions of intervening in career development plans and group programs. Central experiences and changes during their preparation for future career, process of the chang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are identified. 10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who attend a local university,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connect the students via its student counsel center, were asked to be interviewed in writing.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 are analyzed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approach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n participants' experience, resulting in the followings: Defined are 110 concepts coming under 51 subcategories from 24 categories. Processed by structure analysis using paradigm, consequential factors are confirmed as 'un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isadvantages in school work and career preparation attendant on physical difficulty'; Central phenomena include 'helplessness upon career preparation' and 'grievance for difference'; 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on phenomena are 'ambivalence for parents', 'limited opportunity of

career selections and experiences', 'low self-esteem with negative self-conception' and 'others' gazes and skeptical reactions to difference'; Mediating factors facilitating action/reaction strategies to phenomena are revealed as 'consoling family', 'presence of supporting network', 'emphasis on will of career realization with observing and learning', 'internal motivation of overcoming', 'external motivation of breaking prejudices' and 'awareness of social generosity; The action/reaction strategies are shown 'making one's own effort', 'obtaining aid by communication', 'collecting career information', and 'participating in career experiencing activity'; and the results are coming as 'accepting difference and forming identity as a disabled person', 'establishing professional ethics', 'succeeding in school work and rehabilitation' 'focusing on preparation and having composure' and 'understanding and thanking friends';

The process of career preparation of interviewees includes five phases over time, which are 'mental confusion', 'motive-activated', 'practice', 'broader acception' and 'concentration.'

In selection coding, core category turns out to be 'accepting the identity of a disabled person and proceed toward concentrated career prepara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core category and continually emerging categories around the core category are revealed into four types: 'focusing', 'irresolute', 'secluding', 'narcissistic'.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these reasons. First, the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Korean disabled college students is analyzed based on the interviews stated by insiders. Second, comparing the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to that of non-disabled students, this study brings up the career barrier felt by disabled college students for separately constructing career counselling to provide them. Third, with a trend of increasing disabled college student population in local universitie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ance for local universities to utilize to help their newly entering and/or attending disabled students.

Forth, this presents the proces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going on to the focused career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the preparation, offering how to consultatively intervene into certain type of preparation. Finally, in this study, the positive aspect are shown that disabled college students make their way to focused career preparation and feel their composure on the way, which proves strong points of them specifically by displaying how they endure and cope with the challenges.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한다. 흔히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장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고자 노력하며 사회로 온전히 자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는 환경은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곳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주요한 진로 발달과업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능력,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진로탐색 및 목표설정을 통해 직업에 입문할 준비를 한다(최윤경, 김성희, 2012). 이는 대학생 시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막연히 생각하던 진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게 되는 시기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더불어 권석만(2010)은 대학생 시기를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로 보아 난해한 전공공부를 비롯하여 음주와 흡연, 이성교제, 성생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소비활동,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등과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고 Chickering과 Reisser(1993)은 독립과 자율, 그리고 유능성 획득과 친밀감 형성, 자기정체성 수립과 같은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들에게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장애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로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 진로 준비 동안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이 진로 준비에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사회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Lent와 Brown(2008)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진로발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외적 요인을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개인 변인들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 선택과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인지이론이 장애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요소인 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인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포, 진로준비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에게 신체장애와 건강상태는 비장애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에 개인 외적인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95년에는 4년제 대학 6개교에 107명이 입학하였으나 2005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3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대학생은 총 337개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에 8,01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증가추세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제공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배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라는 것이 단순히 대학입학 기회의 확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2014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률은 48.7%인데 비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9.1%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직종별 장애인구인동향에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2.1%,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5.9%,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5.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7.4% 순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 없는 분야의 구인이 대부분이고 취업분포도 또한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4.4%로 가장 높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것은 여전히 장애대학생이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고, 취업 후 일반인과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취업직종의 환경도 생산 단순직이나 경비나 청소 관련직 등 비율이 높아 제한적인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옥경,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로 상황에서는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충분히 고등교육의 성과를 발휘한 다양한 진로 환경으로의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대학 재

학 시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학업수행이나 취업준비가 어렵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옥경, 2004).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장애 대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고, 더 세분화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어윤경, 2009; 김봉환, 2007), 특히 장애 대학생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Chubon(1985)은 장애인들이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Schroeder(1995)는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부여할 수 있고 제한적인 정보 접근 양식을 가지고 있어 진로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수준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경(2003)은 장애학생들이 협소한 대인 관계적 기술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진로분야 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능력 혹은 직무가 강조되는 환경을 비교적 높게 갈구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 대학생은 개인적·사회적인 다각적으로 진로발달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의 진로 발달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연구(권순우, 김병하, 2003; 김남순, 2001; 김동연, 1999; 김진호, 2004; 김천우, 2001; 원종례, 2001), 장애등급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정재권, 강영애, 2004), 학업성취관련 연구(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이경림, 박재국, 2007),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분화수준 등 심리적 관점의 연구(권현용, 김현미, 2004;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유치관, 2001; 장순옥, 2001; Kazdin, 1988;

Livneh, Martz, Wilson, 2001; Martz, 2004) 등이 수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 역시 비장애대학생 못 지 않게 높으며(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정세영, 박재국, 2013;) 상당한 수준의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실, 손현동, 2009).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김진영, 정원철, 2014), 김은실과 손현동(2009)은 장애대학생이 진로와 취업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며, 이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학교생활을 방해하고 교우관계를 어렵게 할 정도로 만성적인 수준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장애 대학생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진로와 관련된 불안 수준이 높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사회활동에서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고(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학생의 52.8%가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는 77.8%, 그리고 응모 기회에 대해서는 72.2%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애 외, 2003).

이처럼 2000년대 이후부터 장애대학생의 진로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장애대학생의 당면한 진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진로 어려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대부분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선택 및 준비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제시하여 진로태도나 준비의 수준을 규명하거나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어려움 이외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대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대학으로 장애인 편의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애대학생의 수가 적은 대부분의 대학 환경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을 보며 갖게 되는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장애대학생이 같은 장애학생을 보는 인식 및 태도 혹은 비장애학생을 보는 인식 및 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로 이루



어졌는데, 이 또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결과들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문헌들에 의하면 장애 대학생들은 초기 경험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평가 및 자아개념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Schroeder, 1995) 김동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경우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진로에 대한 자신지식, 동기, 결단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연구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의 결과일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비장애학생들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애 대학생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가정 하에 직업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은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더라도 직업 환경은 급변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대학생이 대학생살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그들만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는 한 개인이 새로운 기회와 역할, 생각과 믿음, 행동을 탐색하게 하고 새로운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하도록 나아가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의 역동적인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진로준비경험 동안 실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준비경험과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장애대학생의 ‘내부인’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심도 깊은 묘사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려줄 수 있으며 역동적인 실체를 밝혀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그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Padgett, 2001).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밝혀주는데 유용하며, 참여자들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할 수 있어서



실제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Fasiinger, 2005).

본 연구는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진로준비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1학년의 진로준비 수준은 낮으나 2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김봉환, 김계현 1997; 임제경, 김동일, 2004; 손은령, 손진희, 2005)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진로준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동안의 진로준비 경험을 회고하여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장차 그 수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변화해나가는지를 그들의 생생한 체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그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진로준비경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공고히 하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신입 장애대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적 개입 방안과 집단 프로그램 개발을 구안하는 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지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장애대학생이 진로 준비를 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가?’ 이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어떤 중심적인 경험을 하는가?

둘째, 장애 대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가?

셋째,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통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요인은 무엇인가?

## Ⅱ. 이론적 배경

###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 1. 장애대학생 현황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해 나갈 때 비로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장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고자 노력하며 사회로 온전히 자립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의 참여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개개인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하는 추세이다(김정선, 2003).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도한 경쟁주의 사회에서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버거운 현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 내의 바람직한 진로 준비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에 따라 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95년에는 4년제 대학 6개교에 107명이 입학하였으나 2005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3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대학생은 총 337개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에 8,01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증가추세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제공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배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라는 것이 단순히 대학입학 기회의 확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2014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률은 48.7%인데 비

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9.1%밖에 되지 않았고 직종별 장애인구인동향에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2.1%,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5.9%,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5.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7.4% 순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 없는 분야의 구인이 대부분이고 취업분포도 또한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4.4%로 가장 높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는 여전히 장애대학생이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고, 취업 후 일반인과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취업 직종의 환경도 생산 단순직이나 경비나 청소 관련직 등 비율이 높아 제한적인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옥경,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로 준비 상황에서는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충분히 고등교육의 성과를 발휘한 다양한 진로 환경으로의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학업수행이나 취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이옥경, 2004).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장애 대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Chubon(1985)은 장애인들이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Schroeder(1995)는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부여할 수 있고 제한적인 정보 접근 양식을 가지고 있어 진로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수준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경(2003)은 장애학생들이 협소한 대인 관계적 기술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진로분야 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능력 혹은 직무가 강조되는 환경을 비교적 높게 갈구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

에 대학생은 개인적·사회적인 다각적으로 진로발달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의 진로 발달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장애대학생의 진로발달

### a. 사회심리이론

Astin(1984)은 욕구-기호 사회심리학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동기, 성역할 사회화, 기회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진로 선택기대를 예언한다. 인간은 생존욕구, 쾌락욕구, 기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동기화 되는데 직업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사회화 경험과 지각된 기회구조를 통해 형성된다. 이는 비교적 비장애학생들 보다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과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적다는 것과 연결된다. 장애학생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진로 체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장애대학생들은 제한적인 사회적 상황의 규준을 내면화 하는데, 이러한 사회화 과정과 기회구조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기회구조는 직업적 결정을 하게 되는 사회적 힘을 의미하고, 직업적 역할, 차별, 직무요구사항, 경제, 가족구조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김영실, 2010). 이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지각하게 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를 이해해야 됨을 시사한다.

### b. 진로의사결정 사회학습이론

진로선택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은 초기에 Krumboltz와 Mitchell, Gelatt(1975)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Krumboltz와 Mitchell(1990)에 의해 연구되었다.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은 교육적·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교육프로그램과 직업 및 현장의 일들이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은 고전적 행동주의이론, 신행동주의이론(작동적 조건화이론, 강

화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이는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그의 독특한 학습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있다.

Krumboltz(1975)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네 가지로 가정하고 있는데, 유전적 자질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을 말한다. 먼저, 유전적 재능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을 말하는데, 즉 교육적·직업적인 선호나 기술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과 특징, 지능, 예술적 재능, 근육의 기능, 신체적 장애를 포함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같은 소수집단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 진로 기회를 접하고 준비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조건과 사건으로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개발, 활동, 진로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가능한 직종의 내용, 교육훈련이 가능한 분야, 사회정책, 노동법, 천재지변, 천연자원의 공급 및 이용가능 정도, 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변화, 가정의 영향, 교육제도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장애대학생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들임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직업적 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에 과거의 학습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이상의 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과제접근 기술을 낳는다. 다시 말해, 인종, 성, 신체적 장애 여부,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인은 그에 따른 학습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학습경험은 환경적 조건과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은 유전적 자질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학습이론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종으로의 입문을 어려워하는 것은 환경적 조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진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경험의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과 학습기회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은 장애인에게 일종의 진로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진로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c.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areer Theory, SCCT)은 Lent, Brown , & Hackett(1994)에 의해 연구되었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본 진로발달의 기본 내용들은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나온 것으로 인지적 과정과 자기 규제 과정 그리고 동기 과정을 생애의 현상에 혼합한 이론이다.

Lent와 Brown, & Hackett(1994)과 같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진로발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인 개인 외적 요인을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개인 변인들을 함께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회인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요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회인지이론이 장애인의 진로발달에 시사하는 바는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인 요소인 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건강상태는 유의미하게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맥락적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가진 신체 장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문제는 가장 큰 맥락적 요인일 수 있으며 진로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인 어려움은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에 흥미를 느끼고 목표를 정하고 준비해 나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Lent, Brown & Hackett(1994)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흥미와 목표 사이에 일치상의 차이는 주변의 지지체계,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각된 진로장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장애대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거에 변화가 야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인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결과 기대의 개념은 장애인의 보다 정형화된 직업 선택과 실행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결과 기대를 구분하여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진로준비로 바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진로준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거나 진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 진로를 선택하



는 것과 같은 진로준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많이 종사하지 않는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나아가고 싶은 자아 효능감 대한 기대가 높은 장애대학생은 동기 부여의 부족이나 직무 현장 내 진로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면 장애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Lent, Brown, & Hackett(1994)의 이론은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최근 현저하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에 참여하는데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정도와 지각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

장애대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애대학생의 연구는 주로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대학생활 적응에 관련된 변인 연구와 진로 결정에 관련된 변인 연구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와 학습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장애대학생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권순우, 김병하, 2003; 김남순, 2001; 김동연, 1999; 김진호, 2004; 김천우, 2001; 원종례, 2001;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은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장애대학생의 학사경고, 휴학, 자퇴 비율이 높고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은 교육 성취률을 보인다고 보고하며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렸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렸으며(정재권, 강영애, 2004), 심리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은 약한 자아 통제력과 분화수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현용, 김현미, 2004;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유치관, 2001; 장순옥, 2001; Kazdin, 1988; Livneh, Martz, Wilson, 2001; Martz, 2004; Rutter, 1991).

또한, 장애대학생이 진로준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기 위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장애대학생의 취업 욕구와 취업 준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옥경, 2004; 김동일 외, 2011; 심용복, 2005)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 욕구도 비장애대학생 못 지 않으며 의료적 요인, 가족지원 및 관심, 학교생활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학교생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진로 결정간의 관계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으며(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석말순, 2005)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진로 준비를 나아가야 하는지 진로를 결정해야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지만 장애대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준비 둘 다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김진영, 정원철, 2014) 장애정체성과 낙인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며(배영광,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윤현희, 2008)과 같은 영향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했다는 점과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연구가 필요하다.

## B. 근거 이론

### 1.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구조를 밝히고자 근거이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한 이유는 근거이론이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변인들을 강조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조명할 수 있고 그들이 당면한 진로준비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Mead가 창시하였고 그의 제자 Blumer가 발전시킨 것으로, 인간 행위자를 반응하는 유기체가 아닌 사회와 자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구축하는 행동유기체로서 보았다(Schreiber & Stern, 2001). 개인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과 별개의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독특한 노력의 결과라고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매우 규칙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들은 행위 양식과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회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행동의 의미는 가변적이며 사람이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면서 생겨나고 변형된다(Hewitt, 2000). 따라서, 근거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진정한 삶을 탐구하고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Stern, 1980), 추론을 통하여 도출된 이론보다 더 ‘현실’을 닮는 경향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첫째, 특정 대상 및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의 부적절성과 한계성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으로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아 비장애대학생들에게 맞춰 타당화 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라는 것에 한계점을 갖는다. 이처럼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행위자의 행위, 경험세계, 삶의 본질 등을 행위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근거이론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이론은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직관력을 제공하고,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Strauss & Corbin, 1998),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둘러싼 과정과 궤적에 대하여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시도하여 사회적 실재에 대한 실체적 이론뿐만 아니라 형식적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은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 이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지그재그 방

식을 취하고 분석을 통해 개념과 속성이 나타나면 상위개념인 범주로 발전시킨다.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료에 포함된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해석이며 분석의 산물이다. 속성은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특성으로 범주를 정의하고 범주에 의미를 부여하며, 차원은 범주의 속성들의 변화하는 범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로부터 잘 발전된 범주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어떤 연관된 사회, 심리, 혹은 기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신경림, 2001).

### Ⅲ.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 10명을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지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장애로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가자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장애대학생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문한 장애대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장애 대학생들과 합의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녹음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도중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았을 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다.

#### B. 근거이론

본 연구는 장애 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경험을 근거 이론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상호작용 양상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함으로써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개념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차원이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분석의 단위는 참여자인 사람이 아니라 사건, 이야기 등일 수 있다. 표본추출은 연구 시작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에 따라 더 목적에 부합하고 초점이 맞춰지며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포화

(saturation)란, 분석 도중 더 이상 새로운 속성, 차원, 및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분석이 가능한 변화를 대부분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넓은 관련 영역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몇 개의 범주를 얻게 되면 표본 추출은 이러한 범주를 발전시키고 밀도를 더 하고 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지속적 비교방법은 출현하는 개념, 사건, 범주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비교를 할 때, 개인이나 사례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개념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며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

(3) 코딩(coding)

근거 이론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개방코딩은 ‘초기코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료로부터 특정한 개념을 밝히고,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 방법이며,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에 따라 여러 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범주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정교화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속성과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다. 코딩과정에서 메모와 도표가 사용되는데, 메모는 코딩이 결과를 서술하고 연구자의 느낌, 생각, 연구방향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 도표는 개념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신경림, 2001).

(4) 순환적인 분석과정

근거이론 접근에서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시작되어 지그재그형의 과정을 연상케 한다(Creswell, 1994). 즉, 현상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에 들어가고 다시 현장에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 자료수집은 분석결과 발견된 범주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지 않을 때 종료된다.

(5) 이론적 민감성

연구자가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자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 및 이론적 통찰 능력을 말한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혹은 분석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향상된다고 하였다.

## C. 연구절차

### 1. 연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방법(purposive)을 사용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을 살펴보고자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선정하였다. 2, 3, 4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봤을 때, 1학년의 진로준비 수준은 낮으나 2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의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임제경, 김동일, 2004; 손은령, 손진희,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현재와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로준비과정을 회고할 수 있는 3, 4학년 대상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자는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대학생들을 중점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학생을 신청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여 총 10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 8명, 여자 2명이었다.

###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광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으로, 5명은 4학년이고, 3명은 3학년, 2명은 2학년이었다. 연령은 20대 8명, 30대 1명, 40대 1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8명이며, 여성이 2명이다. 장애 발병시기는 선천적 장

애가 3명, 후천적 장애가 7명이었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5명, 시각장애 4명, 청각장애 1명이었다. 장애정도는 1급이 3명, 2급이 1명, 4급이 1명, 6급이 5명이었다. 통합교육여부는 7명이 초, 중, 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명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병행했으며, 2명은 특수교육을 받았다.

참여자 번호	성별/연령	학년	전공계열	장애 발병시기	장애유형	장애 정도	통합교육 경험
1	남/20대	4	체육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2	남/20대	3	공과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3	남/40대	4	사범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1급	일반학교+ 특수학교
4	남/20대	4	경상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6급	일반학교
5	남/20대	2	공과대학	선천적	지체장애	2급	일반학교
6	여/20대	2	사범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6급	일반학교
7	남/20대	2	사범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8	여/20대	4	사회대학	선천적	지체장애	1급	특수학교
9	남/30대	4	법과대학	후천적	청각장애	4급	일반학교
10	남/20대	3	사범대학	선천적	시각장애	1급	특수학교

표 1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3. 자료수집방법

#### a. 면담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다. 근거이론 자료 수집방법으로 비구조화 면담이 가장 적합하며 참여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한 자료로써 연속적인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근거 이론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신경림, 2004).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준비 과정을 회고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진로사고검사를 했던 장애 대학생들과 예비면담을 통해 기초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좀 더 추가하고 싶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질문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교수님과 질적 연구를 준비하는 석사 과정의 연구자 3명의 자문을 바탕으로 질문내용을 다시 보완·수정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실시한 후 보완·수정하여 최종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한 면담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초점질문
당신의 진로 준비 과정은 어떠한가?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
진로 준비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로준비과정 중 당신이 사용한 전략들은 무엇입니까?

심층질문
장애로 인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로를 준비하는 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로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로 준비에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장애로 인한 어려운 점들이 진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로 선택의 기준은 어떠한가?
진로 준비 과정 중에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진로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진로 준비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2 . 면담 질문지

## b. 면담 실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전달하였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과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위의 내용이 기록된 참여자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1차면담에 참여하였으며, 2차와 3차면담은 1차면담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반구조화 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심층면담으로 들어가기 전 연구 참여



자와 인사를 나누고, 최근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연구자는 휴대용 녹음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했다. 총 2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Strauss & Corbin, 1998)을 이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그리고 메모와 도식을 이용하였다. 코딩(coding)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을 말한다. 그 첫 단계로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해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그리고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은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메모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 해석, 계획, 주제, 가설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 a.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부티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개념들을 포괄하는 범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녹취한 면담 내용을 한 줄 씩 분석해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에 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찾아 명명하였다. 개념의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해석하여 명명하였다. 명명화 작업을 통해 발견된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였다.

## b. 축코딩

축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을 하는 목적은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이다. 축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이 중심현상과 연관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과 결과를 밝혀낸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를 통해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쟁점이 위치하고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하게 해준다(이수진, 2012).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맥락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 중심 현상은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생각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내포된 구조적 조건 중의 하나로 특정 상황에서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을 의미하며,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즉, 범주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해 연결된다.

##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발전된 범주들을 이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는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 중인 모든 사례들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검증하여 유형을 발견하고 자료의 체계화 및 연관성을 강화하여 근거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설적 관계와 정도의 영역을 관계진술로 제시하고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며 이를 토대로 관계 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적 진술을 통한 이야기 윤곽을 제시한다.

선택코딩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를 끌어내는 힘을 갖고 자료의 윤곽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핵심범주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념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찾기 위해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서술적으로 이야기 윤곽을 적어보았다.

또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간의 전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자료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은 연구자가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녹취록 10개를 읽은 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범주화하면서 코딩 작업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줄 단위분석을 사용하여 구절마다 잘라내어 분류해보고 단어마다 자세히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분석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중심 생각을 확인하며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코딩하였다.

## 5. 자료 분석의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양적연구와는 다른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신경림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하였다. 이 개념들은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에 해당된다.

사실적 가치, 신뢰성이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가 실제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독으로 개념 짓지 않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만나거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참여자들의 구술을 기술, 분석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개념이나 중의적 표현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은 전이가능성으로 양적연구에서 외적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인 개념의 일반화는 의미가

없다. 다만 질적 연구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연구 결과를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박한샘,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2인에게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연구 결과물이 자신의 진로준비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진로준비 경험에 적용가능한지를 평가받았다.

일관성이란 연구자가 사용한 분명한 흔적(dicision trail)을 다른 연구자들이 따라갈 수 있고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모순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이는 양적연구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성, 감사가능성(aud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면담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하는 동료 연구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교수님, 박사 1인과 논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반영하였다.

중립성이란 연구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증성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양적 연구의 경우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질적 연구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기준이 확립되었을 때 도달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 결과

### A. 개방코딩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들을 범주화 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110개의 개념과 51개의 하위범주, 2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남 후천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음	장애를 겪고 있음	장애를 수용하지 못함	인 과 적 조 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강의를 따라가기엔 힘들 필요한 자료의 부족	학업을 지속하는 것 에 대한 신체적인 어 려움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 로준비가 불리함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시도하기 전부터 기가 죽음	친구들을 보며 의욕 을 상실함		
부모님의 보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갑갑함 부모님의 강압적인 말들로 인해 더 하기 싫어짐 부모님의 간섭이 심함	부모의 강압적인 태 도 및 간섭에 대한 반감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맥 락 적 조 건
부모님이 싫어할 말은 하지 않음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죄송한 마음 이 큼 아직도 학생신분인 것이 죄송함	부모님께 죄송한 마 음		

준비하던 진로가 보기 싫어짐 신체 조건으로 인해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학창시절부터 경험이 부족함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음	학창시절부터 진로경험이 제한됨		
직업교육과 고용시장의 괴리를 지각함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고용조건을 인식함	진로 선택의 제한점을 인식함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막막함 진로 계획의 잦은 변경 직업 조건과 신체적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불편함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재는 게 많아짐		
비장애대학생과 다름을 의식함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위축됨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함 소극적으로 변화함	고유의 나를 잃어버림		
타인의 시선이 불편함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짜증남 사람들은 배려에 집착함 할 수 있는 일을 시도도 못 하게 만들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시선을 보냄 주변에서 초를 침	진로 선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		
대학 동기들에 대한 실망감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대학생활 내 관계 부적응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친구들과 모여서 뭘 하려면 무엇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p>돈 계약을 받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야 됨</p>	<p>것에 대한 제한점</p>		
<p>선택에 대한 불안함 수행에 있어서의 불안함</p>	<p>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p>	<p><b>진로 준비에 대한 무력감</b></p>	<p>중심현상</p>
<p>진로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됨 겉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함</p>	<p>겉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위축감을 느낌</p>		
<p>도전하는 것이 싫음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있음</p>	<p>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낌</p>		
<p>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뒤처짐 정보 접근에 오래 걸림</p>	<p>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서 억울함을 느낌</p>		
<p>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함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서러움</p>	<p>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p>		
<p>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음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픈</p>	<p>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p>	<p><b>위안이 되어주는 가족</b></p>	<p>중재적 조건</p>
<p>부모님이 지지해주심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줌</p>	<p>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줌</p>		
<p>교수님께서도 내게 신경을 많이</p>	<p>선생님들이 응원해줌</p>		

써주심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심			
친구가 많이 챙겨줌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밀어줌	나와 함께하는 친구 가 있음	<b>있음</b>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음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싶음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b>보고 배우며 진          로실현의지를 다          짐</b>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됨 매체를 통해 자극 받음	성공사례를 통한 희 망고취		
두려워하지 않고자 함 의지가 중요함을 깨달음	마인드컨트롤의 중요 성을 깨달음	<b>이겨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 유발</b>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자기대화를 통해 이 겨내고자 함		
타인의 편견으로 오기가 생김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함	사람들의 편견을 깨 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b>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          유발</b>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함	의존하고자 하는 마 음을 접음		
장애특별전형 제도를 알게 됨 장애특별전형으로 걱정이 덜 됨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b>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b>	
군대 면제로 준비할 시간이 더 많 음 군 복무가 도움이 됨	군 관련 배려를 받음		
자신을 이해하기	자기이해를 통한 학	<b>스스로 애써보기</b>	<b>작</b>



내게 맞는 학습하기	습법을 터득하기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필요한 자료 찾아보기 운동과 재화에 힘쓰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애쓰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기 학교생활 스스로 하기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	도움 없이 스스로 생 활해보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자신의 힘든 부분을 표현하기	참여하여 관계하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 이용하기	도우미 제도를 이용 하기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얻음 강사를 통해 정보를 얻음	주변 사람들과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진로 정보 수집 하기	
인터넷에서 진로정보를 검색함 TV를 통해 정보 챙겨보기	매체를 통하여 진로 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 자원봉사하기 할 수 있는 일 경험해보기	여러 가지 활동에 부 딛쳐보기	진로 달성을 위 한 체험하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장애아동을 가르치며 보람 느끼기	체험을 통해 변화하 기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함 편안함과 나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 이 생김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정 체감을 형성함	결 과
억울하더라도 직업의 한계성을 인 정함	장애인으로서 직업의 한계를 인정함		

다른 대안을 찾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음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음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짐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음		
친구들이 실력을 인정해줌 성적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잘 나옴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학업과 재화에 대한 성공을 이룸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됨	재활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팸 확고한 신념이 생김	직업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덜 함		
나와 다른 환경의 비장애친구들을 이해함 비장애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냄	친구들을 이해하며 잘 지냄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움 친구들에게 미안함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표 3 .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 1.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참여자들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다르게 ‘장애’라는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고, 중, 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도중, 신체적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 판정을 받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부상을 입거나 군 생활 도중에 몸에 무리가 와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는 굳이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의 권유 혹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애 판정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스스로 선택한 장애 판정이지만, 이들이 장애 판정을 받음으로써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 판정을 받음’으로 범주화했다.

### a.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남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그랬는데 이게.. 치료가. 신경 쪽은 그 때 제가 7살 이후로 병원을 안 갔거든요. 7살 때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영구장애라고. 제가 지체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 쪽인데 전체적으로 보서는 뇌부터 시작해서 신경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체 쪽. 다. 거의 다.. 네. 그니까 일부는 신경이 살아있고 일부는 신경이 죽어있는데, 신경이 죽어있는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참여자5)

#### 후천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도실명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 맹학교를 딱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때 그 주치의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했어요. 왜냐면 이제 상처가 클까봐. 그리고 수술..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부모님도 선뜻 저한테 이야기를 못해주셨고.. 근데 우연찮게 그거를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하면은 이제 그 뭐야.. 이제 지하철에서 예? 저.. 그 바구니나 들고 다니고 그런..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80년대는

그런 게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참여자3)

그것 때문에.. 그냥 장애 진단을 받으면 니가 받고 싶으면 받아라 했는데, 그니까 받은 것도 효도하는 셈치고 받았거든요. 장애 하면은 부모님 차라도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는.. 받아도 저한테 좋을 건 없다 만은 그냥 부모님 차한테 바꿔 주자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지금.. 혜택 이런 거.. 그걸 로라도 그 때 당시에는 그걸로 효도 하자 싶어가지고 받았거든요. (참여자1)

아니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했는데, 장애 따니까 뭔가 느낌도 이상했고, 내가 장애인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 뭔가 눈 잃어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까지.. 굳이? 어.. 그래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컸나 봐요. (참여자6)

## 2.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축소판인 ‘대학’ 이라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 비장애학생들에게 ‘대학’ 이라는 환경은 여러 가지로 시도해볼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지만, 참여자들에게 ‘대학’ 이라는 환경은 익숙하고 틀이 정해져있던 학창시절에서 벗어나 낯설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불안함의 장이 된다. 그러한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강의실을 스스로 찾아 가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야가 침침해져 안약을 수시로 넣어주거나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점자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직접 파일로 점자를 변환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손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어진다가나 강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바깥에 오래 있으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 조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준비하면서 많은 비장애대학생들

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보다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비장애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기가 죽어서 시작하기도 하고 수행해 나아가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주변의 비장애학생들은 이미 진로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라며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인 어려움’, ‘친구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함’ 으로 범주화했다.

### a.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인 어려움

####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교수님께서도 스터디 룸 들어가 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몸 때문에 가끔 포기하게 된게 있었죠. 같이 공부할 때 그럴 때 모여서 공부하는데 저는 그럴지 못하니까..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어요. 집에서는 허리에 또 뭐 차고 있거든요. 밖에 나오면 그런 걸 못하니까. (참여자8)

음.. 우선은 여러 명 있을 때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둘이 있을 땐 되는데, 4~5 명이 모여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때는 조금 의기소침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참여자9)

#### 강의를 따라가기에 힘들

좀 심해요. 계속 약 넣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책 보는 건 그나마 좀 나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 ppt있잖아요. 그거는 빛도 그렇고 흐리니까 다 안보이니까 계속 쓰다가 계속 넣고 넣고 하다보면은 꼭 이제 학기가 매번 계속 될수록 눈이 점점 더 할 때 마다 안구 건조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땐 몰랐는데 다 판서잖아요. 고등학교 땐. 그래서 괜찮았는데 딱 대학교 오자마자 ppt보니까.. 그것 땀에 계속 안 좋죠. 몇 년 짜. 눈이 계속 뿌옇게 보이고. 컴퓨터도 안 좋죠. 안 좋는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쓰는데 쓰다가도 한 시간 두시간만에 넣고 넣고 해야죠.

(참여자4)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자율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저는 글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참여자10)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은 이해가 딱 되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단어나 말이 쪽 오면은 헷갈리거든요. 원래 다 헷갈리겠지만, 더 헷갈린다는 거구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쓰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잘 안돼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니까 쓸 거면 쓰는 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게 좀 그래서 불편하죠. 쓰는 게 빠르지가 않아요. 빠르게 쓰려고 하면 이상한 글자가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쓰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손이 좀 더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과제 할 때 아 죽을 것 같아요. 또 이겨내려고 해도 한번 씩 안 되면 막 엄청 짜증나요. 그니까 다 괜찮은데, 갑자기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되면 아 너무 화나요. (참여자 2)

### 필요한 자료의 부족

사회적으로나 이런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서비스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에 애들을 받아들여놓고 교재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 (참여자10)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점자 자료가 상당히 없어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그러면 이제 다 들어서 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한 시간 듣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눈으로 봐서 되뇌이는 것 하고 들어서 하는 것보다 기억력도 눈이 시각적인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구조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곤한 일들인데.. (참여자3)

### b. 친구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함

## 속도를 따라가는 힘들

이게 점자가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수업을.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수업에 어.. 빨리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 힘들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들 중에 빠른 편에 속하는데도 교수님들이 빨리 불러주시고 일반 애들이 하는 것보다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 놓치는 부분도 사실 있고, 그런 것. (참여자10)

조로 뭐 할 때가 있었는데.. 빨리 내면 그 조는 이제 좋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하지만 다 안 되니까는.. (참여자2)

그리고 피아노 칠 때도 이렇게 다 애들은 이렇게 보는데 전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그것도 힘들고. 손도 짧으니까 옥타브가 잘 안돼요. 그래가지고 아 손. 누구꺼 붙여보고 싶다. (참여자6)

## 시도하기 전부터 기가 죽음

예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쯤 보면은 어.. 지금 다 40~50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있잖아요. (참여자3)

아우.. 자신감 하락이죠. 의욕도.. 의욕상실.. 하기 전부터 그냥 기가 죽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든.. 공부하던 애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자1)

## 3.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느껴졌던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와 간섭에 대한 갑갑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님의 간섭으로 밖에 나가는 것부터 진로를 준비하는 학습지, 트렌드에

대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고, 과잉보호와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대학을 복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을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모님으로부터 참견을 받아야 했다. 또한, 진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강압적인 말들을 통해 더 하기 싫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참여자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같이 느끼고 있었다.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자신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학생 신분인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느꼈으며 장애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부모님께서 싫어하실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끄끄 앓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와 간섭에 대한 반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으로 범주화했다.

### a.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 및 간섭에 대한 반감

#### 부모님의 보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갑갑함

또 부모님도 보챔테고, 그 보챔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도 갑갑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콜센터 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7)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애들인데 저는 안 친한데 엄마랑은 친해요. 근데 엄마가 그 쪽 모임을 갔다 오면은 재네 딸은 연세대 다닌다더라. 고려대 다닌다더라. 인하대 다닌다더라. 거기서 전장을 받고 다닌다더라. 너는 뭐하냐. 정말 싫거든요. (참여자 5)

#### 부모님의 강압적인 말들로 인해 더 하기 싫어짐

정말 강압적인데요. 장학금은 무조건 받아라. 전장 아니면 학교 못 보낸다. 계속 2년째 말씀하고 계시고. 휴학은 절대 안 된다. 3학년 2학기 전까지 정보처리기술자격증 무조건 따놓고 토익 900점 넘어와라. 어.. 4학년 5월달 까지 취업 무조건 해 놔라. 안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겠다. 네. 안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하라하던데.. 그 4학년 1학기 때 까지만 지원을 해주셨대요. 그 뒤부터는 너 알아서 하래요. 더 하기 싫죠. 더 하기 싫어요. (참여자5)

해라 그러죠. 해라 그러는데 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하라 그러는데 죽을 만큼 하라는 걸로 들리죠. (참여자4)

### **부모님의 간섭이 심함**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으면 방해하고 옆에서. 엄마는 이제 너는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고. 간섭은 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간섭하고. 이제 공무원도 시험 같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굳이 옛날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라고 (참여자4)

원래 못 나가게 했고 부모님이 넘어지고 다친다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디 나가는 것도 솔직히 재미없고. 안 나가고 또. 잘 안 나갔어요. 넘어지고 다친다고. (참여자7)

그게 좀 한번 씩 엄마 없을 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약간 좀 과잉보호라 해야 되나? 하하. 또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다치니까 더 그러죠. 근데 아저씨는 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절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여자2)

### **b.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 **부모님이 싫어할 말은 하지 않음**

취업 이런 거에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말씀드리고 혼자 끙끙 앓는 정도.. 네.. 그렇게 (참여자1)

원래 못 나가게 했고 부모님이 넘어지고 다친다고 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 애들이 놀러대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말하면 부모님이 싫어한게 (참여자7)

##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죄송한 마음이 큼

부모님하고도 얘기는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크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많거든요.. 운동할 때부터 해가지고.. 하..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하..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다투다가도 그런 생각 들면 괜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직도 신경 써 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보니까는.. 은퇴할 때 엄마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그 때 죄송하다고 너무 많이 울었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장남이랍시고.. 그냥 못난 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참여자1)

엄마가 계속 미안해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울었는데, 입시 선생님한테 할 때마다 한 번에 15만원 주면서 했는데 떨어지니까. 또 예고 가면 학교에서 레슨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사비로 하는데, 일반고를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항상 사비로 가야되거든요. 그러가고 일주일에 30만원씩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아빠가 힘들어했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참여자5)

## 아직도 학생 신분인 것이 죄송함

마음이 아프고.. 남들은 이제 빨리 취업이다 뭐다 하면서 하는데 혼자 아직도 학생 신분이고, 그런 게 죄송하더라고요. (참여자1)

아무래도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이게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빨리 잡아야 겠다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참여자3)

## 4.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참여자들은 후천적 장애의 경우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병원생활을 반복함으로써 준비하던 진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면서 포기하게 되기도 하였고, 부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준비하던 진로가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칠

것이 예상이 되어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포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를 다니었던 경우 비장애학생들과는 다르게 학교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바로 집으로 가야만 했고, 수업량이나 공부량이 적었으며 체험 학습의 기회도 적어 자신의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제공 되어지는 안마사와 같은 직업 교육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기업에 취직하기에는 가장 1순위로 정리해고가 되어버릴 것 같고 버티기 위해 발악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직업적 조건과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맞춰서 생각해야 하므로 재는 게 많다는 말들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학창시절부터 진로경험이 제한됨’, ‘진로선택에 대한 제한을 인식함’,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재는 게 많아짐’으로 범주화했다.

### a.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 준비하던 진로가 보기 싫어짐

은퇴하고 이쪽분야에 해 봐야 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 쪽 분야에는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아예 다른 처음엔 완전 체육이랑은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쪽 일은 아예 진덜머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참여자1)

단 눈이 한 쪽이 안 보이니까 짜그마한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던져버리고 한 달 두 달 쉬다보니까 손도 이게 미술 하는 거 하기 싫고 하니까 귀찮.. 처음에는 귀찮기도 .. 아프니까 신경 안 쓰고 귀찮고 슬렁슬렁하다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제 미래가 없잖아요 사실상. 화가 뭐 눈이 안 보이면 화가 해도 뭐 할 거예요. 완전히 고등학교 와가고 좀 안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계속 했죠 하기는.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계속 정신 차리고 보면은 병원에 들어가 있고 정신 차리면 병원에 들어가 있고 하고나면 갔다 와서 보면 하기 싫고.. (참여자4)

#### 신체 조건으로 인해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막상 복귀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심하다보니까 그 부상 당했던 장면이라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보니까는 이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1)

금께 이제 내가 내 몸을 생각해서 사회 복지사를 포기한 거지. 만약에 교수님이나 누가 여기는 뭐 그렇게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다 이런 데 있으면 갈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런 곳이 복지관에는 많이 없으니까 생각을 접은 거지. (참여자7)

일반 사기업은 제가 취업을 해봤자 많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아파서.. (참여자5)

## **b. 학창시절부터 진로 경험이 제한됨**

### **학창시절부터 경험이 부족함**

애들이 만약 나랑 논다치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학교 끝나면 집. 다 모두다 집에 가고. 그럼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3시 반에 끝나는데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뭐 중고등학교 되면 숙제하느라 바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집에 오면 그냥 집에 간 갑다.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더 놀고 싶고. 집에 가봤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애들 보면은 우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 집 밖에 없었어요. 그게 좀. 막 애들은 학원도 가고 어디가고 어디가고 한다. 나에 반경은 집과 학교 뿐이어가지고. 좀 심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음**

근데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어.. 그니까 나는 그래요 보통 애들은 아닌데. 어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 번 나가려면 일인께 그것도.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적어서 애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왜냐면 보통 애들에 비해 너무 공부하는 양이 적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접해본게 없으니까. 보통 학생들은 여기저기 다 보고 학교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보는거라고는 그냥 학교

생활인데 선생님 친구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를 수 있는 게 특수교육이랑 복지 밖에 없어요. (참여자7)

### c. 진로 선택에 대한 제한점을 인식함

#### 직업교육과 고용시장의 괴리를 지각함

시각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지금 상당히 제한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또 일본에서는 이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안마에.. 사회 편견도 좀 많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틀린거예요.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환경여건도 지금에야 점점점점 변하고 있어요. (참여자3)

개네들처럼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마기술을 실업계처럼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마원 이런 곳 (참여자10)

####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고용조건을 인식함

뭐만하면 일단 정리해고를 하는데, 장애인 먼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은 나이 드신 분들.. 일단 잘리는 대상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사기업들은. 그냥.. 반짝 돈 벌고 아님, 그 일반 사기업을 들어가면은 미래가 불안 불안해져버리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안 잘릴라고 발악을 해야 되고 그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참여자5)

사기업 가가지고 5년 10년하다가 짤리고 정리해고 돼서 다시 또 어디 경력 인정도 못 받고 다시 5년 10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여자9)

### d.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재는 게 많아짐

####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막막함

내가 끝까지 가는데 이 목표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좀.. 재는 게 많더라구요. 내가 이 길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될까 이 길로 이렇게 가야될까? 재고 있는 건 지금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빨리 정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파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여자1)

저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게 목푼데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참여자2)

### 진로 계획의 잦은 변경

국사 쪽으로 관련된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걸죠 역사역사. 지금은 완전 다르죠. 전 원래 문과예요. 작업치료학과. 재활치료학과. 1지망은 제가 작업치료학과를 쓰고 2지망이 아마 미술치료 쪽이었는데.. 대기 1번이었어요. 근데 어.. 이게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2)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막연해가지고 그냥 (참여자1)

한 우물만 파다가 인생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파놔야 될 것 같아서. 그니까 한 개만 엄청나게 잘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러 개를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을 전 계속 했어요. 예전부터. 한 개만 파자는 생각은 거의 없었거든요. (참여자5)

### 직업 조건과 신체적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불편함

나는 금방금방 직업을 요즘 사람은 직업 찾기 힘든디 나 같은 사람은 더 찾기 힘든디까 한 번 들어가면 내가 나오지 않는 한 안 짤릴 수 있는 (참여자7)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하 약간 그런거 있죠. 약간.. 거의 손 쓸 수 있는 모든 거? 근데 자기가 할 수.. 일은 거의 다 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라서. 계속 또 운동하다가 안 하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참여자2)

## 5.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과 편견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리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같이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봤을 때, 몸을 불편한 애로 구분되어 버릴 것 같은 마음과 자신의 다른 모습을 의식면서 일부러 밖을 나가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 주면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걸모습 때문에 무시당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활발했던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이상의 내용을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고유의 나를 잃어버림’ 으로 범주화했다.

### a.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 비장애대학생과 다름을 의식함

딱 보면 몸이 불편한 애 이렇게 구분되버릴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봐주면 좋겠지 만..? (참여자2)

초등학교 때 맨날 놀려댔어요. 야 반쪽이 하면서. 니 그냥 병원이나 가재 뭣하러 학교 왔냐 이려고. 애들이 맨날 저만 구박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이랬어요. 나 잘 못 한 거 없는데. 뭐 조금만 떨어뜨려도 너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여자6)

그래서 그니까 아니 그 걷는 모습이라던지 그런 게 달라요. 남들이랑. 그리고 남들이랑 걸어갈 때 속도. 이동속도 같은 것도 남들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저는 한 한시간 정도 걸리니까 절반정도? (참여자5)

내가 장애인인데 이렇게 칭찬받아도 되나 막 이런.. 뭔가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가가 좀 이상한 느낌도 들고.. (참여자6)

그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다르구나. 그래서 막 그냥 밖에 잘 안 나갔거든요. 그냥 개들 많으면 그냥 안 가면 되고. 좀 옆으로 피해 다니고. 그냥 좀 애들 돌아다니는 시간 되면 그냥 좀 집에 있고. (참여자7)

###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위축됨**

애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애들은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참여자1)

제가 불편해서 제가 몸이 이렇게 돼서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간관계 대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거의 다 병원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깐.. (참여자2)

무시 안 당하고 살 것 같긴한데.. 근데 몸이 이래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애들은 요즘 다 날씬한 애들 좋아하는데, 저는 몸이 이래서 다 놀릴 것 같으니깐 얼른 살을 빼야죠. 애들이 다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5)

### **b. 고유의 나를 잃어버림**

####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함**

약간. 네. 그런 거 있죠. 내성적어지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죠. 근데 약간 사람 사귄 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막 안녕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하.. 그렇게 해봤자 뭐.. 재원 소리하지 이렇게 되는.. 옛날 같으면 두루두루 다 친했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다치고 나니까는 이게 그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제가 여자한테 말을 전혀 못 걸어요.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뒷담이 많아요. 그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수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그냥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프냐 대놓고 물어보는데 여자들은 쑥덕쑥덕. 제가 말을 딱 걸면은 앞에서 말을 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수군수군 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제가 싫어서 아예 말을 안 걸거든요. (참여자5)

성격도 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활발했는데, 알게 되면서 몸도 어른 되면서 더 아파지고 하니까 많이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더 성격에 변한 것 같아요.

(참여자8)

### 소극적으로 변화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떨어졌죠. (참여자2)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좀 그 때는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소극적으로 변했죠. (참여자3)

성장 끝난 어른이 되고 이게 계속 심해지고 어른되면서 끝났으니까 그 때부터 더 밖에 잘 못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아프면 바로 집에 가야되니까.. 더 소극적으로 됐어요. 대학에 와서는 별로.. 대학교 친구들은 별로.. 집도 멀고 그러니까. 친한 몇 명만 친해요. (참여자8)

## 6. 주변의 ‘다름’ 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여기고 필요보다 넘치는 남들의 과한 배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과 달리 ‘다름’ 에 대해 오지랖 넓게 신경쓰고 쳐다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장애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화장실을 같이 들어가 준다거나 쉬운 일만 하도록 한다는 등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보다 더 과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배려에 집착한다고 표현하였으며 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시도도 못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언짢아하였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고 ‘너는 못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초를 치는 모습들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진로 선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 으로 범주화했다.

### a.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 타인의 시선이 불편함

외국은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것저것 불편하고 막 이제 서럽다고 하죠. 그런 걸 느껴보면서 (참여자2)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남들 시선이 예.. 좀 그래요 (참여자5)

애들은 좀 뭐라 그럴까 시각장애인.. 저기 저희 과 애들이나 보면은 안 보이는 앤데 애가 하겠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 느꼈어요. 사실. 애가 하겠어 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느낌이 조금씩 들었어요. (참여자10)

####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짜증남

특수 교육을 하기위해서 오는 애들 일텐데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예.. 애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생각했던 건 어느 정도라도 있겠지 그래도 애들이 생각하고 왔을텐데 그랬는데 뭐 거의 전혀 없더라고요. (참여자10)

이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안마에.. 사회 편견도 좀 많고. (참여자3)

### **사람들은 배려에 집착함**

워할 때 애는 몸이 불편하니까는 거기서는 배려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번 씩 너무 배려를 해줄때가 있더라고요. (참여자2)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남들.. 그니까 친한 친구들 까지도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이나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니까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 식으로 하는데, 슘.. 너무 그 집착을 한다할까? (참여자5)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더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게 생각이 있으니까. (참여자7)

### **할 수 있는 일을 시도도 못 하게 만듦**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려고 하는데 약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거..? (참여자2)

근데 그 사람이 재는 이거 못 할 것이다 미리 결정을 해 놔 버려가지고 미리 다 손을 써가지고 너는 이것.. 그니까 쉬운 일을 해라. 어른들은 다 손을 써 놨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많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자주 있어요. 너무 자주 있어요. (참여자5)

그냥. 금께 뭐 불편하면 뭐 앉아서 발표해도 돼. 이런 거나 그냥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금께 날 처음 보는 교수들은 아 불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도 된다고. (참여자7)

### **b. 진로 선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

## 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시선을 보냄

반대의 시선들.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그 나이 먹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우는 건.. 그만 두지 않겠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오 히려 사범대 쪽이 좀 이게 모든 과정이 타이트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이런데는 좀 더 여유있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50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범대 쪽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어.. 그렇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과연 직장을 잡을 수 있을래냐.. (참여자3)

수업 들어가도 뭐 운동부는 돌대가리네 뭐니 이런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걸 깨야지, 내가 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했는데, (참여자1)

## 주변에서 초를 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니가 그걸 버틸 수 있겠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참여자 7)

왜 계속 그 말을 하는지. 계속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건데. 가서 만약에 취직을 한다 해도 버티고 못 버티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아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결정할 일인데 왜 미리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초를 치는지.. (참여자5)

## 7.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어색해 하고 오티와 엠티를 다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장애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제한점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들은 학과 동기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감을 느껴 기대를 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공강시간을 혼자 버티면서 대학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과 모여

서 하는 조별 활동, 놀이, 여행, 이동 등 무엇을 하려든 간에 제약을 받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정을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대학생활 내 관계 부적응’,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제한점’ 으로 범주화하였다.

### a. 대학생활 내 관계 부적응

#### 대학 동기들에 대한 실망감

뭐 지 살기 바쁘니까는 허허.. 그렇게 술 마시면서 뭐 뭐해먹고 사노 이 얘기 뿐이고 그냥 뭐해먹고 사나가 이야기의 반이예요. 그러다가 술만 계속 마셔요. (참여자1)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동기니까. 근데 애들한테 실망이 있다 보니까 애네들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싫었어요. 소한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실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슝.. 음.. 되게 사소한 건데, 시각 장애인들은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조금은 보이지만 사람을 알아보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큰 물체보고 피해 다니고 그럴 정도지 사람을 알아보진 못 하는데, 먼저 인사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면 분명 목소리는 내가 아는 애 같은데 그냥 지나가고 근데 나중에 뭐 아는 분한테 들었더니 너네 과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참여자 10)

####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애들 막 모르는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인관계도 좀 확실히 사람들은 술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항상 뭘 해도 술로 끝나잖아요. 저도 뭐 좋아 좋은데 몸이 못 따라주니까..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 먹죠. (참여자2)

우선 그래서 오티랑 엠티를 다 갔거든요. 친해져보려고. 근데 막.. 친해져요. 친해지기

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순간이니까 오티 엠티도 끝나고 몇 번 모임이 있고 계속 그  
 게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그 간격동안 친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인사하는 친구는 있지 같이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 사이 한 몇 주 정도가 힘들었어  
 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불고 그랬었어요.. (참여자7)

## **b.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제한점**

### **친구들과 모여서 뭘 하려면 무엇이든 제약을 받음**

다 같이 모여서 뭘 해도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저 땀에 못하면 또 그럴잖아요. 최대  
 한 다 하는데까지는 하는데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친구들도 다 같이 모였을 때 야 pc  
 방이나 갈까 했으면은 전 못 가죠. 그런 것도 있고. 노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런 것도 좀 있어요. (참여자2)

1학년 다닐 때 제일 처음에 저는 특수학교를 나와 가지고 일반 애들이랑 부딪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나랑 같은 아이들이랑만 다니다보니까 물론 개네랑 다녀도 어려  
 움이 있는데, 지금 친구랑 다니면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개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행동  
 들을 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생각해서 지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서.. (참여자7)

###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야 됨**

지금은 좀 만나면은 좋긴 좋는데, 귀찮은 게 좀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또 제 사정  
 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되니까는 정말 귀찮  
 아요. (참여자2)

왜냐면 나는 느리고 이러니까 버스타기도 어렵고.. 또 사회대거든요. 그 언덕에서 내려  
 올라면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버스 탈려면 버스 타는 것도 애들이 좀 도와 줘야되고  
 이러다보니까 애들이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빠릿하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게 어려웠고.. (참여자7)

## 8. 진로 준비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참여자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며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무기력감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서지 않고, 결정한 목표가 다시 엮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는 수행에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진로를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자신감이 없어 소심해지기도 하였으며, 무기력감을 느끼며 흥미를 느낄만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싫어지고 멍한 상태가 반복되어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겉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위축감을 느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낌’ 으로 범주화했다.

### a.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 선택에 대한 불안함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목표가 없어졌다는 불안감에 막 방황한 시기가 길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니까 확실한 확고한 목표가 없어지니까는 다시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더라고 요. 내가 끝까지 가는데 이 목표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살아야 되나 그냥 이걸 해가지고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은지.. 그렇게..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런 과정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혼자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막 고민도 많고 (참여자1)

좀 옛날. 좀 바로 지르는? 그 때 그 때 다른데 이런 걸 할 때는 좀 연습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하는거거든요. 막 다쳤을 땐 살아야죠.. 어.. 이제 또 친구들은 취준생 아니면은 취업했으니까 좀 확실히 생각하는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나도 빨리

준비해야겠구나 하죠. (참여자2)

### 수행에 있어서의 불안함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공. 성공은 할 수 있는데, 할건데, 할 수 있는데가 아니라 할 건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길이 내가.. 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나한테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아있는 것 같고, 나이도 .. 뭐 얼마 안됐지만은, 나이도 점점 차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이제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짧은 길로 몸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시작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안 나올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면 될까? 그런 불안감. (참여자1)

구체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게 사무보조 정도? 있더라고요. (참여자2)

### b. 걸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위축감을 느낌

#### 진로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됨

신체적 능력도 좀 많이 하락되고 자신감도 없고 아우.. 자신감 하락이죠. 아.. 저렇게 힘든.. 공부하던 애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자1)

있죠. 약간 자신감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 때는 군대 가면 다 그래요. 뭘 해도 다 할 것 같고, 계속 하는 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치고 나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참여자2)

그러고 그냥 집에서 눈도 이제 못 뜨니까 하루 종일 음악만 듣고 있고 그러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참여자4)

#### 걸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함



네.. 그래서 그니까 아니 그 걷는 모습이라던지 그런 게 달라요. 남들이랑. 그리고 남들이랑 걸어갈 때 속도. 이동속도 같은 것도 남들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저는 한 한 시간정도 걸리니까 (참여자5)

막 얼굴에 대해서는 좀 소심해져가지고 옛날부터 얼굴이 아파 와서..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얼굴이 얼음 되가지고. 얼음 되버려요. 갑자기 생각이. (참여자6)

### c.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낌

#### 도전하는 것이 싫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게 되면은 다 그랬어요. 확실히 사람은 그냥 다 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2)

도전하는 게 싫었던 거죠. 약간. 그냥 편하게 좋죠 이제. 그냥 남들 간섭 덜 하고 안정적이고 뭐 화가 하면은 뭐 어디 학교나 들어가거나 학원이나 차리면은 잘 되야 뭐 조금 벌어먹고 겨우 벌어먹고 사는 건데 눈 안보이면은 그것도 없잖아요. (참여자4)

####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삼

그 당시에도 우울이 우울함이 큰 상태였어 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루하루가 우울하게 살아갈 때라.. 그 때 학교 갔다가 일도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 오면 잠들고 안 오면 그냥 밤새고 되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1)

갑자기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눈이 딱 안 보이고 딱 끝났으면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눈이 천천히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아프고 그냥 끝났으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멍하니.. 그것

밖에 없었어요. (참여자4)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있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참여자2)

나는 금방금방 직업을 요즘 사람은 직업 찾기 힘든디 나 같은 사람은 더 찾기 힘든디 까 (참여자7)

**9. 다름에 대한 억울함**

참여자들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를 통하여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들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며 억울해 하였고, 비장애학생들은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인데 자신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느꼈다. 또한, 희망하고 싶은 진로, 흥미로운 진로를 선택하지 못 하고 자신의 신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서러움과 억울함을 느꼈다.

이상의 내용을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서 억울함을 느낌’,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 으로 범주화했다.

**a.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서 억울함을 느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뒤처짐**

아, 나는 안돼. 나는 왜 안 돼지? 왜 재들은 저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도 나만 이렇게 뒤쳐질까? 라고 해야 되나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애들은 그 잠깐 보고도 금방 할 수 있는 문젠데 저는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 거 되게 억울하고 (참여자10)

### 정보 접근에 오래 걸림

아 원래 옛날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는 똑같이 계속 하던 거라..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집에서 혼자 하다보니까 정보 같은 거에 좀 느리죠. 이제. 어디 학원 가 같은데 다니면은 학원에서 계속 뭐 알려 주고 알려 주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면은 그런 건 느린 편이죠. (참여자4)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 몸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좋다보니까 정보력도 약하고.. (참여자8)

정보접근이 큰 것 같아요. 공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애들은 잠깐 마우스 터치하고 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되게 저희는 오래 걸리잖아요. 저 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것 억울하죠. (참여자10)

### b.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

####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함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하 (참여자2)

좀 나는 내가 하고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짜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복지관은 또 없을까..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있다고는 해요. 근데 무슨 항상 교수님들이야 제자들의 꿈을 잃지 않게 하기위해 말씀하시는거니까 막 확 와닿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회 복지사는 운전도 잘 해야 되고. 막 짐 같은 것도 많이 날라야 되고. 진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

야 되는데. 나는 운전도 못 하고 짐도 못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클라이언트랑 대화하고 진짜 작은. 작업하고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막상 복지관에서 나를 쓴다 치면 그 월급에 비해 너무 적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7)

###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서러움

그니까 아무래도.. 프로.. 이제 프로 가는게 이제.. 목표였는데,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농구했는데. 프로를 프로가 그냥 목표였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는데.. 안 됐죠.. (참여자1)

이 속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다 되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게 더 흥분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럴 상황이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막 옛날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서러움? 약간 그런 거? (참여자2)

일단 눈이 한 쪽이 안 보이니까 짜그마한 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참여자4)

## 10.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지지를 통해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자식으로써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어 하였고, 어른스러운 동생들을 행동을 보고 동기를 부여하고 무시당하지 않을 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시는 가족들의 모습과 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을 통하여 큰 힘을 얻었다.

이상의 내용을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줌’ 으로 범주화했다.

### a.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음

빨리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은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그럴더라고요. 제가 잘되고 잘해야지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있지 않으실까.. (참여자1)

부모님께서 다 일흔이 넘으셔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도움이 되어 드려야죠. (참여자3)

##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픈

제가 장남이다보니까는 조금.. 내가 좀 잘 되어야지 탄탄하게 되어있어야지 동생들을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여자1)

동생이 이제 대학을 원래는 이제 중앙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해군사관학교가 합격이 되가지고 그 쪽은 나라에서 전부 지원해주니까는 지 간에는 부모님 위한다고 저한테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애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길래 보면서 여유롭게 방황하고 있을 땐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진로를 생각하게 됐는데, (참여자1)

## b.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줌

### 부모님이 지지해주심

부모님도 지지해주시고 부모님은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많거든요.. (참여자1)

부모님이 잘 해줘 가지고. 그냥 다.. (참여자7)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세요. (참여자8)

어머니 역시도 슘.. 타지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긴 하지만 절 믿는 편이시고. 아버지는 좀 도전해보라는 말을 부딪쳐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편이라서.. 일반 애들. 특수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거기 갇혀 산다고 생각하셔서 일반 애들 사이에서도 뭐 해보라 많이 하셨어요. 난 요기서만 있었으니까 좀 모르는 게 많을 거다 밖에서 다른 경험을 해보라 부딪쳐보라 라고 하셔서 (참여자10)

###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줌

부모님도 나쁜 말 안 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어.. 힘들지만 걱정 많이 해주시고, 병원 갈 때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괜찮다라는 말 한 마디만 해주셔도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8)

저희 부친께서 괜찮은 사업아이템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게 있다. 그리고 조력해주실 힘도 있으니까 이걸 하면 어떨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참여자9)

부딪쳐보고 알아서 잘 열심히 한대라고 생각해주셔서 터치를 많이 안 하셨고 어머니 역시도 슘.. 타지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긴 하지만 절 믿는 편이시고. (참여자10)

## 11.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참여자들은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응원과 대학 생활 속에서 교수님들의 응원,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같은 지지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창시절부터 자신에게 잘 할 수 있다며 배려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지받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왔던 친구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진 못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믿어주는 짧은 말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있었고, 대학 생활 내의 친구들이 챙겨주거나 도와주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응원해 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음’ 으로 범주화 했다.

### a. 선생님들이 응원해 줌

#### 교수님께서도 내게 신경을 많이 써주심

인생상담처럼.. 교수님 그 담당 교수님도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죠. (참여자3)

교수님께서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참여자8)

근데 거의 학교 다니면 돌고 돌거든요. 같은 선생님이. 그러다보니까 날 잘 알아요. 근데 처음 보는 교수들은 뭐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줘서 다행이다 라는 둥 그런 말을 하죠. 보통 애들한테는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7)

교수님이 절 많이 챙겨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참여자10)

####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심

선생님들은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저 피아노 치는 거 아니까 그냥 음악실 가가고 연습해도 선생님들은 뭐라 안하고 (참여자6)

선생님이 그래서 도우미라는 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동도우미랑 그냥 생활도우미랑 신청하고 선생님이 이제 착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 (참여자7)

저희 학교 출신 선생님들은 다 지지해주시는 편이시죠. (참여자10)

## b.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음

### 친구가 많이 챙겨줌

친구들이 이제 생각보다 솔직히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되게 많이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 그냥 다 같이 있으면 노는 애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다친 거 말 좀 늦게 말했거든요. 그 때 이제 말 하니가는 다음날 바로 온 애들도 있었고, (참여자2)

이동도우미는 막 본관 같은 거 다닐 때 느리다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때 그 차가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차 태워가지고 그러다보면 훨씬 수월하게 본관을 간다든 정문을 간다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도우미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생활도우미는 거의 친구를 많이 썼거든요. 항상 내옆에 붙어있을 수 잇는 친구들. 내가 버스 탈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썼어요. (참여자7)

###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밀어줌

우선 친구들은 진짜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어.. 서로 그냥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믿어주고 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잘해라. 그런 스타일이고. 하는 분야가 전공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하지만 뭐 열심히 해라 친구들은 그렇고. (참여자10)

막상 시작하면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고 해줘요. (참여자7)

## 12.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참여자들은 교사의 모습에서 모델링을 하여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나 매체에 소개되는 장애인들을 모습을 보며 희망을 고취하고 의지를 다 잡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교사의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있는 모습에 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보거나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장애를 딛고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감명받아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TV나 SNS를 통해 장애인들이 한계를 딛고 일어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겠다 와 같은 희망을 느끼고 의지를 다 잡았다.

이상의 내용을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성공사례를 통한 희망고취’로 범주화했다.

### a.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음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들이 딱 애들 가르칠 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같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막 그리고 이론 책 가르치면서 그것도 있고 (참여자6)

학창시절부터 복지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근데 학창시절에는 봉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아..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자라와가지고 복지라는 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참여자7)

어.. 저희 수학선생님이. 지금 제가 다른 학교에 계시긴 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계속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니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중간에 안 보였던 것처럼 아예 시력이 안 보이세요. 초3때부터가.. 근데 그 분이 아예 안 보이시는데 수학을 전공하셔서 수학 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한테 수학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제가 보였을 때니까 아 난 보이는데도 수학이 힘든데 안 보이시는 분이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치네?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강하게 와서 (참여자10)

##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싶음

저는 조금의 시력도 있지만, 교수님은 그래도 아예 안 보이거든요. 계속 아예 안 보이셨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인맥을 갖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됐을까 배우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아버지 같은 면이 또 있으세요. 좀 교수님들의 권위적인 면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과 교수님 중에 권위적인 분도 많은데 그런 면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 저희 교수님은 또 그런 면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좀 롤모델로 삼고 있죠. (참여자10)

### b. 성공사례를 통한 희망고취

####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

방학 때 정말 평소에든 이야기 해보면은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막 확신. 자기는 이걸 할 거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생각 계속 해봐야 되나 할 수 있겠다. 저거 하면서 이거하게 된 거죠. 저게 되면서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더 생각하게 됐죠.(참여자2)

또 장애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기에.. 그러면 나도 헤헤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7)

아 내가 수학이든 수학이 아니든간에 나도 할 수가 있겠다 뭐가 됐든. 뭐든 전공해서 교사를 하면 좋겠다. (참여자10)

#### 영상을 통해 자극 받음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어떤 아줌마가 그거 보고 정말 좀 충격이 왔죠. 뭐가 팡 맞은 듯한? 그 사람이 아줌마였는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근데 보니까는 오른 한 쪽 다리가 없었어요. 한 쪽 팔도 없었나? 확실히 기

역은 안 나는데 한 쪽 다리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니까 원래 좀 몸이 이렇게 되면 지레 겁먹고 시작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하다고만 생각할거 아니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표가 그 해를 넘기기 전에 등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하는 거예요. 그 목발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목발 맞나요? 목발이었나. 지팡이였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들고 그냥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데. 거기서 좀 많이 느꼈죠. 내가 더 안 좋은 사람들도 저렇게 다 도전하고 있는데 나도 좀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참여자2)

### 13.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유발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원을 바탕으로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이들은 두려워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 함을 알아차리고 자신과의 싸움, 의지를 다 잡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힘들지만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괜찮다’, ‘아프지 않다’ 등 자기격려를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상의 내용을 ‘마인드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달음’,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함’ 으로 범주화했다.

#### a.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달음

##### 두려워하지 않고자 함

아무래도 목표보다는 준비.. 그 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촉박하긴 한데, 그때보다 마음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빨리 이제 목표가.. 목표를 정해야겠다 보다는 준비를 해야겠다. 목표를 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요. (참여자1)

그래서 처음에 잘 못 걸으면은 무서워서 밑에 보고 이렇게 겨우겨우 걸거든요. 뭐 잡

거나. 근데 앞예를 봐야지 더 잘 걸어지거든요. 제가 좀 옆어질 거를 좀 두려워 하면은 더 못 걸어진다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참여자2)

### **의지가 중요함을 깨달음**

또 보면은 몸은 불편해도 잘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의지차이지 않을까.. (참여자2)

제가 결국에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결국에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중요하죠. 자기가 얼마나 하겠다 그런 의지가 첫 번째죠. 음.. 문제라면 문제지만 음..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하는 거니까.. (참여자9)

### **b.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함**

####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가끔 아픈데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만 가끔 그래요. 음.. 그냥 뭐 아프지 않다 그런 식으로. 괜찮다.. 혼자서..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8)

천천히 하고. 천천히 그 바로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아무래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깐 애들처럼 빠리는 못 할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참여자10)

힘든 거 따지면 이것저것 다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무난하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3)

####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제 성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취직도 못 할거고

내 인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 들죠. (참여자5)

애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포기하게 되면서 뭐 애네들하고는 뭐 가까워지기도 힘들 것 같고 좀 혼자 이겨내야 할 것 같다. 애들하고 도우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테니까 나 혼자 이겨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 생각하면서.. (참여자10)

## 14.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 유발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는 외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잘 하지 못 할 것이라는 타인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로 준비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기대로 너무 의존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자신이 해야 될 때 하지 못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도움 없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음’ 으로 범주화했다.

### a.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타인의 편견으로 오기가 생김**

그러니까는 그걸 깨야지, 내가 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1)

한심해 보일까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여자8)

오기 생겼죠. 어.. 사실 집중 못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집중하게 되면서는 어.. 너네가 어 내 밑에 있어봐라 한 번. 내 밑에 깔려보는 기분이 어떤건지 느끼게 해주지 사

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여자10)

###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함**

얼굴이 아프니까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음악이라도 재밌게 하자 해서 피아노만 계속 쳤어요. (참여자6)

애들하고 도우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테니까 나 혼자 이겨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 생각하면서.. 더 배워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여자10)

### **b.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음**

####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원래 사람은 믿으면 안돼요. 너무 믿어버리면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되봐요. 쥐어 뜯기죠. 저도 저만의 살길을 생각하고 있어야죠. (참여자2)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어요. 계속 애들이 바뀌겠지. 지금은 1학년이니까 그래. 2학년 땀 바뀌겠지. 이런 희망이 있었고. 그러다가 기대감 이런 걸 포기하게 되면서 혼자 스스로 하기로 했죠. (참여자10)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함**

제가 u대회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식음료 물자관리에 인력관리까지 다했었거든요 제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했었는데.. 그 식음료 관리하는 거는.. 그 거는.. 그 좀 나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1600명 쯤 분량을 날라야 되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서 손수레.. 그 수레가 있어요. 들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레에 실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앉아서 사무일 보라.. 그 그런 거 전혀 안 시켜주길래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건데 (참여자5)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다 우리 알아서 해요. (참여자7)

## 15.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되고, 군과 관련하여 배려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장애특별전형 제도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에 대해서 구분 모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특별전형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를 면제 받게 되면서 비장애학생들보다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2년 더 먼저 할 수 있기도 하며,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군 관련 배려를 받음’ 으로 범주화했다.

### a.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 장애특별전형 제도를 알게 됨

나라에서 주는.. 핸드폰 요금제 할인이나, 공무원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들만 따로 시험을 봐요. 따로 거기서 뽑는데 뭐 요새 몇 백대 일? 이정도 한다는데 그거 한 10분의 1정도 사람이 그런 거.. (참여자4)

제가 또 시각장애니까 그 이번에 특수교육 대상자 따로하는 임용고시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시험봐가지고 들어가려고.. (참여자6)

시험에서 저희는 구분모집해가지고 뽑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

아요. (참여자8)

### **장애특별전형으로 걱정이 덜 됨**

어.. 그게 있어요. 국가유공자 되면은 뭐지? 기능직 공무원? 그거는 일단 좋은 게 특채거든요. 그래서 바로 면접만 보면 되요. (참여자2)

티오가 일반인 90% 장애인은 10%정도인데, 일반 학생들은 경쟁률이 10:1정도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미달이 나와서 최저 점수만 넘으면 거의 합격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8)

### **b. 군 관련 배려를 받음**

#### **군대 면제로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음**

학교 생활 하면서는 뭐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군대면제. 정말 큰 거예요. 행복해요. 아니고 저는 그.. 군대를 갔다 와.. sns같은 곳 보면 군대를 갔다 와도 욕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있다는 게.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여자5)

와 달는 게 군대를 안 가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애들보다는 늦게 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그냥 해라. (참여자10)

#### **군 복무가 도움이 됨**

저는 군복무로 이제 방위로 아동센터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2년간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에 흥미가 있고 좋다는 걸 그 때 알았어요. (참여자8)

## **16. 스스로 애써보기**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진로를 준비해 나아갈 때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터득하였고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기, 타자치기, 웃는 얼굴 등을 연습하였고 점자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기관에 찾아가 점자 파일로 변환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각적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운동과 재활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 위해서 걱정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해보고자 하였으며, 강의실을 혼자 찾아가 보는 등 스스로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으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법을 터득하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로 범주화했다.

### a.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법 터득하기

#### 자신을 이해하기

접촉을 하면 또 술 먹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초심이 자꾸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아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회의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진짜 저 사람들 말 듣고 안정적으로 하고 그런 게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시간은 가게 되있더라구요. 시간은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틀리구나. 그런거죠 이제. 그 주변 술먹자하는 사람은 가급적으로 좀 많이 피하구요. (참여자3)

그 전에 내가 왜 의사소통하는데 왜 힘들었지? 라는 부분을 잘 몰랐어요. 제 청력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으니까. 그 때 아 그래서 내가 여러 명 있을 때 의사소통하는데 힘들었고, 좀 시끄러운 소리도 주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 때 알게 됐죠. (참여자9)

그냥 음악으로. 제가 뭐 우울하면 음악으로 막 정화하고 막 이래요. 저 mp3에서 다 노래가 아니라 클래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듣고. (참여자6)

## 내게 맞는 학습하기

그래도 꾸준히 듣고 계속 이제 자기암시로 아 재밌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그 래도 기억이 연쇄적으로 더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3)

시각자료. 맞아요. 막 그림 그려진. 그런 책으로 보는 거죠. (참여자6)

### b.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

####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뭘 했어요. 제가 막 말을 하 면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갑자기 저한테 오늘 뭐했는지 정리해서 말해 봐 하면은 그 때부터 꼬이고 그런..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해야죠. (참여자2)

사실 배울 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연습하죠. (참여자4)

일단 웃는 걸 많이 연습했는데, 원래 많이 웃긴 웃는데 제가 다른 사람 보면 무표정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웃는 연습 많이 했어요. 또 연습실 음악실을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저는 음악 하니까 그냥 음악실 대여하게 해줬어요. (참여자6)

근데 컴퓨터는 저 초등학교 땐가 보급이 되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작업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ebs 영상 보는 게 다반수가 끝이니까 근데 어릴 때 막 컴퓨터반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그 때 타자연습 엄청 시키고 (참여자7)

#### 필요한 자료 찾아보기

점자책으로 보죠. 점자책으로도 소리로 듣기도 하니까 점자자료를 찾죠. (참여자3)

점자 자료는 우선 조금 늦긴 하지만 의뢰를 하면은 점자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로 변환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개강하고 1~2주 넘게 뒤에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지원이 있고, 저희 과 교수님들이나 제가 교수님들 통해서 알게 된 다른 과 교수님들 통해서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파일로. 수업 따라가는 것도 필기하는 부분을 교수님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구할 수도 있구요. (참여자10)

### **운동과 재활에 힘쓰기**

재활 운동을 하면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서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거기 선생님.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다니고 오래 되서 이제 자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배웠죠. 어떤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근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쪽으로 안 쭈그러지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운동을 헬스장 가서 했죠. 제가 작년에 다녔던 헬스장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 재활 센터에. 그래서 거기 누구야 트레이너도 한 명은 아예 휠체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 쪽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 걸 운동하는 게 좋다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 때는 엄청 좋아졌어요. 근력이 생기니까 확실히.. (참여자2)

때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극복하고 있어요. 운동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방학 때. (참여자8)

### **c.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기**

서울에서 멀리 학교를 왔죠. (참여자8)

음.. 계속 특수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떠나면 내가 부모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간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어.. 이제 학교 근처. 집 근처에서 그냥 다닐까. 아니면은 가까운 데에 다니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간다 하더라도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했었죠. 그래도 많이 멀리 왔죠. 강원도 춘천에서 왔으니까. (참여자10)

### 학교생활 스스로하기

그냥 과실에 앉아있었어요. 과실에 있으면 1학년 애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나랑 아는 애들 오면 같이 이야기 좀 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있는게 싫어가고 과실에서 애들 하는 말 그냥 듣고 있어요. 계속. 뭘 이야기 한 갑다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하는구나 듣고 그러다 시간되면 애들 따라서 또 강의실 들어가고. (참여자7)

강의실 찾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외우는 거 다 생각해봤는데, 강의 실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어.. 그래서 생각한 게 핸드폰에 카메라로 대충 그 강의실번호가 있을 법 한 자리를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몇 호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규칙이 있더라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있을 때, 제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앞에 1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2가 들어가고 그런 규칙을 찾아서 강의실 위치를 찾는단지. 뭐 그런 거. (참여자10)

###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

나중에는 제가 먼저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자꾸 해주니까 병원에서는 제가 말하고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데 (참여자2)

아아 괜찮아요 하면서 나가죠. 괜찮은께. 휠체어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도서관 문 앞으로. 저를 태워가지고 밀어서 센터에 보내주고. 화장실 간다니까 또 화장실까지 밀어주는거예요. 아 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혼자 갔다 오니까 아 그러시냐고. (참여자7)

## 17.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참여자들은 관계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학원 다니기,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비장애학생들과 관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이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등·하교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친구를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로 지정하여 학업에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을 ‘참여하여 관계하기’,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 로 범주화했다.

### a. 참여하여 관계하기

####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뭐 일반 애들 사이에 학원도 다녀보기도 하고 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애들 뭐라 그래야 되지 애들이 차별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참여자10)

그 오티 오빠가 봉사 동아리이거든요. 저희 대학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꼬 이제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죠. 같은 동아리 친구들. 그러다보면서 점점 학교생활도 익숙해지고 같이 조별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 하면서 막 제가 그렇다고 막 빼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할라면 해야재. 이래가지고 점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7)

1학년 때는 제가 대표도 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8)

#### 자신의 힘든 부분을 표현하기

그래서 나중에 말했죠. 불편하다고. 그러면 아 형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참여자2)

동아리에서도 보고 수업시간에도 보니까 더 자주 보면서 할 이야기도 통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또 봉사 동아리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착해서 힘든 부분 말하면 다들 잘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참여자7)

## b.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

###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그러면서 또 대학에 가고 싶죠. 가고는 싶은데 그 때 당시 가정환경도 그렇고. 또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갈까 생각을 했는데, 활동보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7)

###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 이용하기

원래 저도 이렇게 막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어.. 말이 이제 대화는 되는데 잘 되는데.. 요약해서 제 의견을 전달? 해주는 쉽게 말해서 발표 같은 것. 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도와줘요. (참여자3)

선생님이 그래서 도우미라는 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동도우미랑 그냥 생활도우미랑 신청하고 선생님이 이제 착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 이동도우미는 막 본관 같은 거 다닐 때 느리다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때 그 차가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차 태워가지고 그러다보면 훨씬 수월하게 본관을 간다는 정문을 간다는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도우미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생활도우미는 거의 친구를 많이 썼거든요. 항상 내 옆에 붙어있을 수 있는 친구들. 내가 버스 탈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썼어요. (참여자7)

## 18. 진로 정보 수집하기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친구, 선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실무에 있는 강사를 통해서 최근 진로 정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새겨들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였고, 뉴스를 통하여 최근 이슈되는 키워드를 검색하였으며, TV에서 나오는 의학 정보들을 챙겨보며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로 범주화했다.

### a.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얻음

그래서 여자 친구도.. 같이 학원 같은 것도 다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혼자 뭐라도 대학원도 체육과에서 대학원 간 형들 만나 보고, 그 쪽으로도 알아보고 또 다른 쪽으로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취업 됐다는 사람들도 뭔가 다시 가봐서 알아보고 (참여자1)

주변 동료들이라던지 그런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사회에서 지내던 주변 분들한테도 상황 같은 것도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런 편이죠 뭐. (참여자3)

선배들도 계실거고요. 먼저 저보다 이쪽으로 가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절 많이 챙겨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많이는 없지만 선배님이나 이쪽 학교에 그래도 그나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몇몇한테 정보를 듣죠. (참여자10)

## 강사를 통해 정보를 얻음

그런 건 실무에 있는 사람한테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강사가 그 쪽으로 한번 씩 이야기를 해요. 좀 미래 이야기.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참여자2)

인강하다보면은 공무원 인강 보통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그러지만 실강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이 주변 학생들한테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보통 학원에서든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 거 듣는 식으로 많이 하죠. (참여자4)

## b.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인터넷에서 진로정보를 검색하기

뭐 시험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짜야 될지. 몇 월 달 몇 월 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어떤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고 언제가 시험 어렵게 나왔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런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 보통. 그니까 도움이 되죠. (참여자1)

제가 직접. 구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카페 임용고시 그런 카페들. 과학교육학과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뭐 그냥 시험문제. 경향성이나 경쟁률 합격점수 그런 것 많이 얻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참여자8)

### TV를 통해 정보 챙겨보기

그냥 뉴스 같은 데 봐서 한번 씩 이슈가 되잖아요. 아무튼 한번 씩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나주 한전. 나주 한전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진흥원에서 최근인가? 한 두 달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인터넷 진흥원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게 나주에 내려온대요. 이런 기사가 뜨면 그 때 찾아보는 거죠. (참여자5)



요즘 보니까 방송 같은 데.. 뭐.. 뭐야? 그거 뭐죠? 천기누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식.. 그런 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채널 돌리다보면 조금씩 봐요. 봤다가 활용한지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이제 제가 교단 서거나 의학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거가 있어서 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참여자3)

## 19. 진로 달성을 위한 체험하기

참여자들은 학창시절 제한되어 있던 진로 체험을 대학에 와서 경험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원 봉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를 받는 것이 주업무인 구청에서 국가근로를 하여 자신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경험해 갔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고유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으며, 보람을 느꼈다.

이상의 내용을 ‘여러 가지 활동에 부딪쳐보기’, ‘체험을 통해 변화하기’로 범주화했다.

### a. 여러 가지 활동에 부딪쳐보기

####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

엄청 그러고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기간 때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편의점에서 오래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운동하면서도 같은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때도 많은 경험이 됐어요. (참여자8)

국가 근로로.. 두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알바생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안 시키고 했는데, 그냥 직원들 하는 거 보면 항상 컴퓨터 작업만 하고 전화 받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내가 공부 좀 더 조금만 열심히 하고 공무원 되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7)

### 자원봉사하기

막 봉사도 많이 다녀보고 확실히 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로 택하니까 어려움은 없거든요. (참여자7)

복지사 선생님 대신 아이들과 같이 하루 종일 방학 때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들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저같이 몸 아픈 학생은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하면서 보람차죠. 특히 그 아픈 장애 학생들 지적 장애학생들도 지체 장애학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줬었어요. 2년 동안. 그 헤어질 때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가끔 방학 때 서울에 있을 때 찾아보고 해요. 교육 봉사할 때도 그 때는 이제 아동센터 때는 초등학생들만 다뤘는데 교육봉사 60시간 할 때는 고등학생들 다뤘는데 (참여자8)

### 할 수 있는 일 경험해보기

근데 제가 구청에서 알바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자리에 앉아서만 일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편한 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내원. 114 같은 건.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일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차별감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공간들이니까 (참여자7)

### b. 체험을 통해 변화하기

#### 여러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일본을 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적극적인 것.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그 시선이라던지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참여자3)

워 돈도 많이 벌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저한테 행패부리는 손님도 많이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장님도 저한테 신뢰를 쌓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시고. 노력하니까 결과로도 보이고. 신뢰도 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8)

### 장애아동을 가르치며 보람 느끼기

장애아동을 가르친 건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면서 보람찼죠. (참여자8)

## 20.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함

참여자들은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수용하고 직업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들은 비장애학생들과의 차이점을 인정해 나가면서 억울함을 거둬들이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편안함과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억울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직업의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방법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장애인으로서의 직업의 한계를 인정함’ 으로 범주화했다.

### a.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

병원에 있을 땐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좀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내가.. 인정을 해야지 좀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2)

개들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개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개들도 나같이 생활을 했으면 달랐을텐데. 개들 생활이랑 내 생활이랑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7)

### **편안함과 나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

인정하면 좀 편하죠. 그냥 마음이 좀 편하죠. 아. 그렇죠. 여유 있어요. (참여자2)

지금의 나의 모습을 아끼고 먼저는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 현실의 모습을. 이상향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비록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신념이라던지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으켜 나가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참여자9)

### **b. 장애인으로서 직업적 한계를 인정함**

#### **억울하더라도 직업의 한계성을 인정함**

억울해도.. 못하니까.. 내가 억울해도 그래 이걸 이겨내서 하면 된다 이게 안 되죠. 솔직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조금 더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아이씨 억울한 거 그까이꺼 집어 치어도 할 수 있는데, 직업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은 직업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참여자7)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여자2)

어차피 여건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참여자3)

#### **다른 대안을 찾음**

그렇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어..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어.. 뭐가 있을까요? 하.. 어.. 젓가락도 예를 들어 젓가락도 인정하면서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젓가락은 꼭 오른손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같아요. (참여자2)

한 가지 방법만 파 가지고 안 되면은 제가 다른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빨리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요. (참여자5)

###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음

그것보다는 그냥 단기 기억상실이란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내가 뭘 원했었고 그랬던 것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뭐 보통 사람들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냥 정신없이 멍하니 있다 오니까 이 전에 내가 뭐 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글고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자4)

그리고 그걸 못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자연..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그니까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어.. 그래도 지금 지내보면 선택은 잘 했구나.. 어..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선택은 잘 했구나 그럼으로써 다양한 경험도 해 봤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참여자3)

## 21.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참여자들은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신체적인 난관에 부딪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한 번 들어가면 잘리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창시절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으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까지도 알려주고 싶어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음’,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음’ 으로 범주화했다.

### a.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음

####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막 뭐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일단은 신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어.. 그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렇죠. (참여자2)

내가 내 몸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7)

선생님이 되면 무시 당하고 살 것 같진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6)

####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단지 계속적으로 나한테 꾸준히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오늘 이쪽에서 일하다가 내일 이쪽에서 일하든 어쨌든 돈은 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안 찢리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뭐 일하는 거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4)

그 직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사무직이라면은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어요. (참여자5)

안정적인 것. 피아노 학원을 만일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애들 많이 없으면 진자 힘들 것 같고. 또 학부모들한테 너무 고개 숙이면서 해야 되고 그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도 안정적이어야 퇴직할 때까지 그래도 40년 동안은 남았으니까 안정적이게 다니자 해서.. (참여자6)

저는 안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도 한 번 되면 사고만 안 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시간도 방학도 있고 하니까 자기 시간도 갖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갖고 있었고. (참여자10)

## b.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음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아.. 제가 갖고 있는 뭐든 기술이나 역량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교육 일선에.. 일선에서 이제 어.. 후진 양성을 위해서 힘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회복지계열에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종사를 했는데, 거.. 우리나라에서 현실 여건 상 사회복지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어.. 변화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네.. 뭐 변화가 저 혼자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참여자3)

그니까 거의 우리랑 관련 있는 곳을 가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참여자7)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건 내가 생각보다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걸 가르쳐야하니까 그렇게 결정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것. (참여자10)

###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짐

어..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서비스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에 애들을 받아 들여놓고 교재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싶고. (참여자10)

그니까 이제 뭐 교단에 서는 거? 그리고 맹학교에서 교단에 서서 좀 역량을 펼치고  
 싶다. 그리고 좀 다양한 그.. 뭐 이제 사회 활동적인 면에서도 조금 그 동안 봐왔던 부  
 분들을 예.. 좀 이제 학..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라던지 아니면 어.. 대학  
 다니면서 저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역량  
 을 펼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참여자3)

## 22. 학업과 재활에서 성공경험을 이룸

참여자들은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  
 에 대해서 비장애학생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실력을 인정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학  
 업적인 성취로 성적에서 비장애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이뤘다. 또한, 병원에서 말해줬던 상황과는 달리 재활과 관련하여 신체적  
 으로 훨씬 호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 경험을 함’, ‘재활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으로 범주화했다.

### a.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 친구들이 실력을 인정해 줌

그니까 일반 사회복지하면서 그 때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까 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점점 이제 거.. 다른 자리도 자꾸 옮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팀장 자리에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일간에 관리를 좀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참여자3)

애들도 그냥 저 음악하는 거 아니까 잘 해주고. 애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참여자6)



## 성적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잘 나옴

딱히 근데 공부는 일반 학생들이랑 뒤지지 않고,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잘하니까 (참여자8)

실제로 그래서 상위 몇 명은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에 할 수 없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름은 안 써 있더라도 학번 써 있으면 웬만하면 학번 누군지 다 아니까. 몇 명 없어서. 제 학번이 있으면 딱 저도 자랑스럽고 애들도 제 밑에 있는 애들이 보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느끼고 그러죠. (참여자10)

### b. 재활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됨

처음에는 저.. 원래는 저 뭐 어디야? 병원에서 장애 1급에 아예 못 움직일 거라고 했대요. 말도 못하고... 근데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포기..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하다가 안 하게 된 거는 젖가락질? 오른쪽 손으로. 처음에 왼손으로 했거든요. 왼손으로 하면 오른손을 아예 안 쓸까봐. 계속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왼손으로 한 것도 있고. (참여자2)

자신감을 키워주고, 체력도 많이 향상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잔병도 많은데 면역력을 키워줘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8)

## 23.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덜 하여 빠른 진로 결정으로 여유로움을 느꼈다. 이들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다른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파는 모습을 보였으며, 명확한 진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생겼으며, 비장애대학생들과 달리 부모님과의 진로 결정 마찰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직업 결정을

빨리함으로써 준비 또한 빨라지면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꼈으며 집중적인 진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직업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덜 함’ 으로 범주화했다.

### a.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아직 시간은 많고. 아직 그리고 일찍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유로운 것 같아요. (참여자8)

또 최근엔 한국사.. 시험이.. 뭐 한국사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여자2)

### b. 직업선택에 대한 내적갈등이 덜 함

#### 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팜

뭐 결국에는 마지막 과정은 임용고시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참여자8)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만약..은 없죠. 그런 의미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여자3)

그냥 당장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만 보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옆에 뭐 한다고 문자와도 그냥.. 공부하나라 이 공부해야지 당장 이 공부를 해야지 졸업하자마자 최소한 취업을 해 볼라고 노력은 할텐데 다른 거 하다보면 이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신경쓰고 있으니까 정보는 딱히 신경 안 써요. (참여자4)

#### 확고한 신념이 생김

경험도 많이 쌓고 하다보니까 미래나 그런 거에 확고하게 이제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보다는 제가 공부에 관심이 조금 더 많고 진로도 명확하다보니까는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여자8)

## 24.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비장애대학생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용하여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비장애대학생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진로를 준비 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비장애대학생들의 배려로 장애특별전형으로 구분모집이 되는 것이라고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친구들을 이해하며 잘 지냄’,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범주화했다.

### a. 친구들을 이해하여 잘 지냄

#### 나와 다른 환경의 비장애친구들을 이해함

개들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개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개들도 나같이 생활을 했으면 달랐을텐데. 개들 생활이랑 내 생활이랑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7)

일반 학생들은 저랑 다르게 살아 왔으니까 학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참여자10)

#### 비장애대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지냄

진짜 편해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냈어요.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참여자5)

대학교 친구들은 다룰 수도 있으니까 양전히 해야 되는데 택도 없었어요. 똑같이 되더라고요. (참여자7)

## b.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움

그런 일반 학생들이 배려를 해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리도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배려를 안 해줬으면 제가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맙죠. (참여자8)

감사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이니깐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더 감사드리죠. (참여자7)

### 친구들에게 미안함

사회에서는 이제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제가 잡아먹어버릴까봐 그게 좀 그럴죠. 그래서 배려해주면 아 그래 하죠. (참여자3)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임용고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서 미안한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8)

내가 가가지고 막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애들도 빨리 놓고 빨리 치우고 자고 할텐데 나 때문에 또 늦어지면 힘들지 않을까 (참여자7)

## B. 축코딩

###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다음에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중립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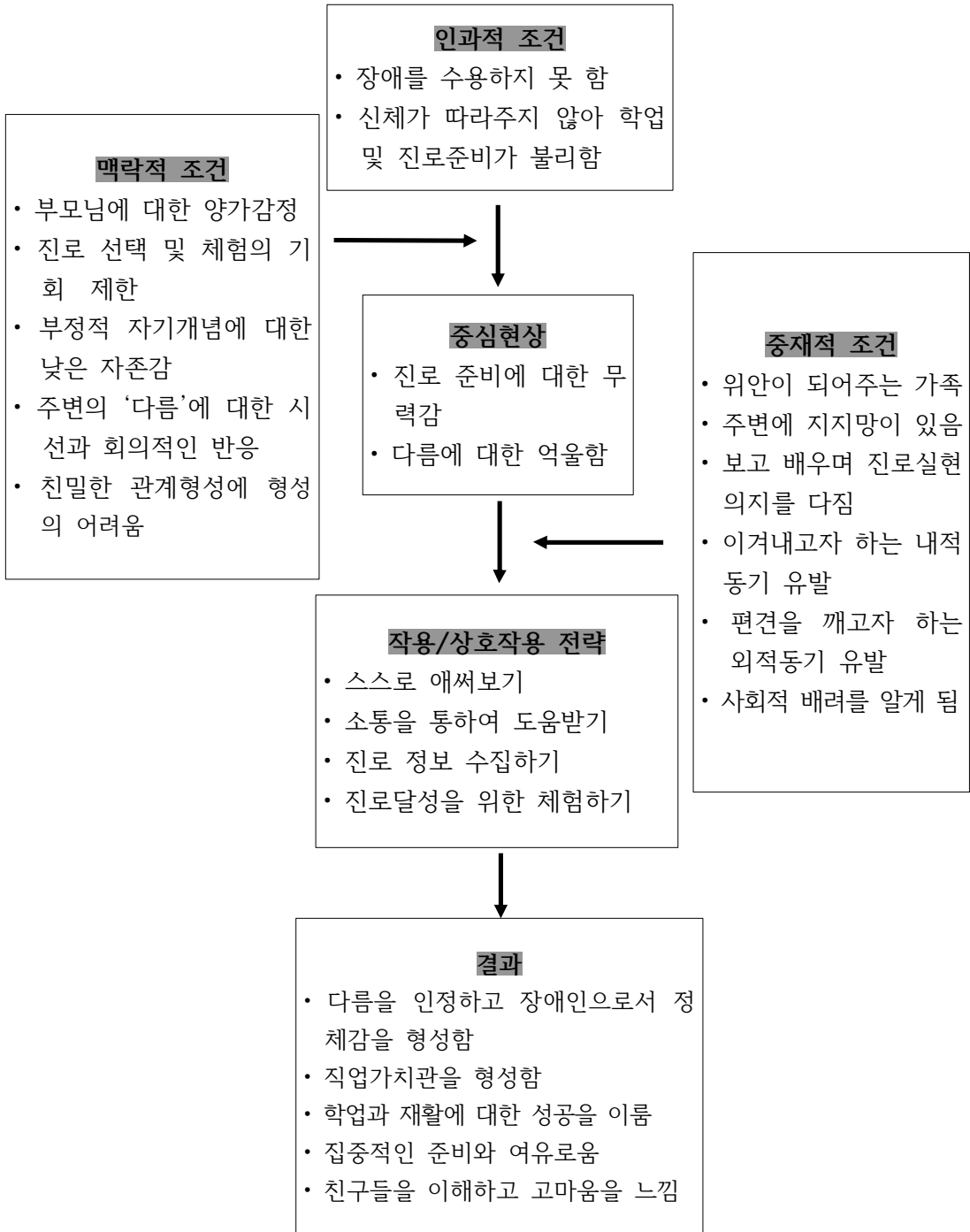


그림 1.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a.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88).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 이 ‘진로 준비에 대한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 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 판정을 받고 수용하지 못 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해 나가기에 힘들어하는 것과 비장애학생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과적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 b.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를 나타내주는 중심현상은 ‘진로 준비에 대한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 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과 위축감을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환경이 장애학생들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장애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억울함을 느낌으로써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심현상으로 배치하였다.

### c.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진로선택 및 체험의 기회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친밀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간섭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경험하고 진로 선택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에게 쏟아내는 시선과 편견, 대학생활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에 따라 진로에 대해 고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 준비를 할 때 느끼는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습과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맥락적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 d.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Strauss & Corbin), 본 연구에서는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유발’,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 유발’,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 이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 힘들어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례 혹은 롤모델을 통해 배우는 것, 동기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를 중재적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 e.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진로정보 수집하기’, ‘진로 달성을 위한 체험하기’ 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며 비장애학생들보다 배로 노력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언제까지나 도움을 청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함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체험의 기회가 적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탐색하면서 해 볼 수 있는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배치하였다.

## f.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함’,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을 이룸’, ‘집중적인 준비로 여유로움’,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장애를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가치기준을 형성하기도 하고 비장애대학생들 못 지 않게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을 이루었다. 또한 내적갈등과 외적갈등을 덜 하게 되어 진로를 선택한 이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비장애학생들을 보며 억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결과로 배치하였다.

## 2. 과정분석

장애대학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준비과정은 의식혼란단계, 동기활성화단계, 행동화단계, 수용확장단계, 집중몰입단계로 나타났다. 의식혼란단계는 참여자들이 대학에 들어와 진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장애를 계속하여 의식함으로 인해서 진로 준비에 집중하지 못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장애를 걸림돌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낙인과 편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에 대해 불안함과 무기력감, 억울함을 느끼지만 동기활성화 단계에서 자신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친구, 교사의 지지를 통해 진로 실현의지를 다지곤 한다. 또한, 스스로조차도 부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기 대화를 통해 격려하거나 편견을 깨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과의 싸움임을 인식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잡는다. 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르바이트, 자원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진로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고, 비장애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표현하며 도움을 받아야하는 부분에는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화 단계에 이른다. 그 결과로 참여자들은 수용확장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 비장애학생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장애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때, 참여자들은 비장애학생들에게 억울함을 느끼던 모습에서 벗어나 비장애대학생들과 자신들의 환경이 달랐음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을 넘어서서 비장애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집중몰입 단계로 나아가 진로에 관련한 빠른 결정을 통해 집중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여유로움을 느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림 2 .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 1. 핵심범주 :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핵심범주는 이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자주 나타나며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범주들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연결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이다.

##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이고 분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핵심범주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해석적으로 이해하여, 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는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부상, 사고, 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든 ‘대학’이라는 환경에 입문하게 되면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조별 활동이나 스터디 모임이 많은데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과 모여서 공부하는 것과 교수님의 강의 속도나 필기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으며 점차 자료가 부족해서 교재를 점차 파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해놓고 몇 주가 지나서야 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비장애대학생들이 마우스만 클릭하면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모습이나 점차 노트북으로 필기를 한다고 해도 비장애대학생들의 필기 속도는 따라가지 못 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며 ‘저 친구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같이 시도하기 전부터 기가 죽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을 포기하거나 휴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기가 되어 진로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선택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걸모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도전하는 것이 싫어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비장애대학생들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과 하고 싶은 걸 하지 못 하는 상황과 마음처럼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러움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냐에 따라 영향

을 받았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는 고유의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수록 진로를 준비하는 데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스스로가 부여하는 장애에 대한 의식과 주변에서 부여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면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에게 내·외적으로 동기를 부여했다. 참여자들이 진로 준비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계획하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지지, 선생님들의 응원, 친구들의 도움과 믿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모델화 시켜 희망찬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로 힘을 얻었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며 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였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가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활성화시켰다. 먼저, 참여자들은 스스로 애쓰는 행동으로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다른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기, 타자치기, 웃는 얼굴 등을 연습하였고, 운동과 재활에 힘 썼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고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다거나 카메라로 강의실 번호를 찍어 확대하여 봄으로써 강의실에 혼자 찾아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원을 다닌 다거나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비장애대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였으며,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여 학교 생활이나 이동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경험해보고, 장애 아동을 만나며 자원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다름을 인정하며 직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참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수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비장애대학생들과 자신은 처한 환경이 다름을 이해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름을 이해하면서 거리낌 없이 잘 지내게 되며 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비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이 참여자들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재화에 열심히 임해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에 대한 외·내적 갈등을 덜 함으로써 진로를 빨리 결정하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진로를 준비함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이야기 윤곽을 통하여 본 결과, 참여자들이 진로준비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핵심범주	속성	차원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사회적지지 정도	많다 --- 적다
	자기개념 태도	긍정적 --- 부정적

표 4 .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 3. 장애대학생 진로준비과정의 유형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 a.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란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유형 분석 과정의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를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범주인 ‘사회적지지’, ‘자기개념에 대한 태도’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 하였다. 정리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

로 준비로 나아가기의 가설적 정형화는 <표 5>과 같다.

핵심범주	사회적 지지	자기개념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많다	긍정적
	많다	부정적
	적다	부정적
	적다	긍정적

표 5 .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

위의 조건들에 따른 핵심범주의 가설을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 나.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 다.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 라.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 b. 가설적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진술은 근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와 결과로 가설적 관계를 진술하였으며 도출된 가설적 정형화를 관계진술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가.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 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장애 정체감을 수용할 것이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이 집중되어 있고 적

극적일 것이다.

나.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지 못 하였으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강하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에 휩쓸려 혼란스럽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 할 것이다.

다.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지 못 하였으며, 진로 준비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며, 불안하고 무기력 할 것이다.

라.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기여 장애 정체감은 수용하였지만 진로 준비에서 정보력이 약할 것이며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여 기회를 놓치거나 진로에 대해 근거 없는 성공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 c.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유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 진술문을 근거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근거 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를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경험의 사실적 관계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와 자기개념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진로준비 경험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크게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형’, ‘자아도취형’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진로준비 유형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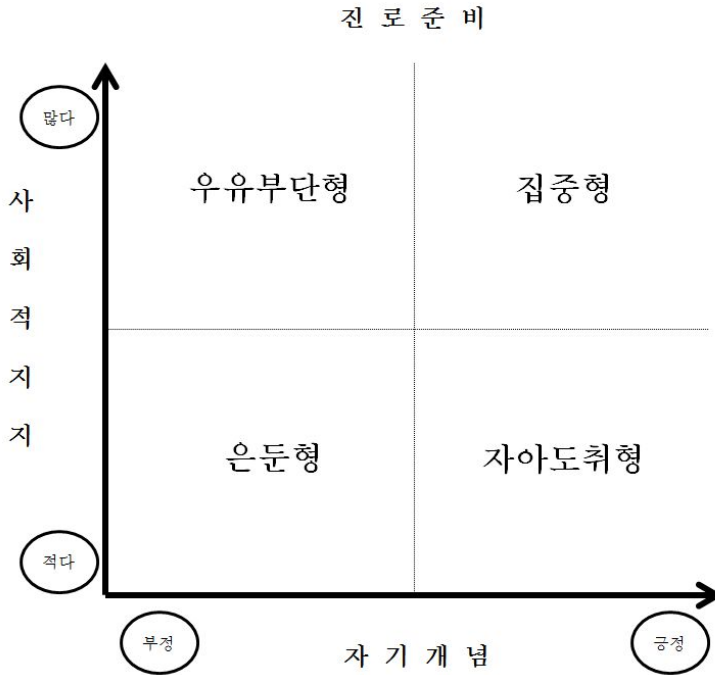


그림 3 . 진로준비과정의 유형

<그림3>에 나타난 정형화된 유형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집중형

집중형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장애를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준비를 해 나아가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가족과 함께 상의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응원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장애를 이겨내고자 하는 동기가 향상하고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되며 학업적인 면에서 일취월장의 성공 경험을 이루어낸다. 진로를 선택하는 것 또한 빠르게 결정하여 한 우물을 파듯 집중적으로 준비해나감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2) 우유부단형

우유부단형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자기개념이 아직

까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 친구, 교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이 명확한 진로를 선택하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함이 있어서 진로에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진로를 준비해야겠다는 동기는 부여되었지만, 주변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와 도움에 휩쓸려 한 가지를 정하거나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발을 걸쳐 놓는 모습들을 보였다.

### (3) 은둔형

은둔형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으면서 자기개념 또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친구들의 믿음, 교사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와 집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하기 보다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감, 무기력감을 달래기 위해 더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4) 자아도취형

자아도취형은 사회적 지지는 적게 받고 있지만 자기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믿음과 도움,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적게 받아 진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수준 또한 적은 상태이지만 자기개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진로를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지지 체계가 약해 진로에 대한 정보력이 약하여 잘 못된 정보들을 걸러서 보지 못 하여 헛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진로 체험에 대한 기회 또한 놓치고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소재 4년제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에 의거하여 개방적 질문으로 초점질문과 심층질문을 실시한 후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소 1차에서 최대 4차에 거친 면담에 참여한 진로준비 경험이 있는 장애대학생 10명을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110개의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이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51개의 하위범주와 24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 으로 나타났고, 인과적 조건에서는 ‘장애를 수용하지 못함’,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 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구체적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선과 반응’,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향상’,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 향상’, ‘사회적 배려를 알게됨’ 이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진로 정보 수집하기’, ‘진로달성을 위한 할 수 있는 체험하기’ 가 현상을 다루는 전략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정체감을 수용함’,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학업과 재화에 대한 성공경험을 이룸’,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 의 범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은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하고 계속적으로 의식하여 혼란

스러운 단계,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진로를 준비해야겠다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단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향상으로 스스로 애쓰고 교류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행동화 단계,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장애를 수용하고 비장애학생들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수용확장단계, 빠른 진로 선택을 통한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집중몰입단계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범주는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 준비 경험 유형은 크게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형’, ‘자아도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집중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 준비를 해 나아가는 유형이다. ‘우유부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어지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실현 의지를 다 잡았으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아직은 진로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 고 위축되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인 불리함을 더 부각시켜 보고 있어 장애정체감을 수용하지 못한 유형이다. ‘은둔형’은 사회적 지지도 충분하지 않고, 자기개념도 부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이 약하여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상태이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상 자체가 위축되어 내성적이고 다양한 활동이나 대인 관계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자아도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 하지만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와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준비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핵심범주는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로 나타났고, 중심현상은 ‘진로 준비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중심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패러다임 모형,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진로준비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 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탐색하였을 때, 진로 준비를 하면서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불리한 측면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다름’에 대한 시선과 반응,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의 조건들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ubon(1985)이 장애대학생은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으로 인하여 진로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점과 Schroeder(1995)가 사회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김은실, 손현동(2009)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도 상당한 수준의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이옥경(2003)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진로 및 취업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장애대학생들은 주변의 지지로 큰 힘을 얻고 모델링, 자기대화를 통한 내적 동기향상,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의 향상으로 진로 실현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김진영, 정원철(2014)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이수진(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은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즉,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지만 지지원을 통한 도움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장애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나타나는 진로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도록 하여 진로 준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장애대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직업적 성취를 이루어내어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교수님과 선생님을 보며 모델링 하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전하는 사례들을 찾아보며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잡고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반두라(Bandura, 1977)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직접 해 보거나 강화를 받아서 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고 보고,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강화를 받은 행동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환경 속에서 그들과 같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진로 준비에 착수하게 되며 도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병숙, 손민아(2005)의 비장애대학생들이 진로대리학습 대상의 유, 무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김상현(2006)의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역할 모델은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목표 추구의 열정 또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이 형성되는 것을 멘티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미리 선택해 놓은 진로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델링 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스펙을 쌓는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달리 장애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주는 교사를 중심으로 모델링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들의 인생경험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실현의지 향상을 위한 모델링 효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로 선택과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장애대학생의 진로개척을 위한 모델링 대상의 존재와 그 대상의 인생 경험의 내용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위한 동기는 자기대화를 통한 내적동기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진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격려를 통해 진로준비를 해 나아가고, 사람들의 낙인과 편견을 깨고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으면서 진로준비를 열심히 해 나



아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경희(2009)가 대학생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진로장애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같은 기능적인 대처방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며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과 같은 대처방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며, 박고운,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흔히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외적 동기는 내재적 속성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보상이나 제한과 같은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동이 조절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내재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도된 행동 동기(최윤정, 구본정, 2010)로 보는 것과는 달리 장애대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신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의 외적동기를 인정해주면서 자기격려를 통한 내적동기를 더욱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인지적, 개인적 변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외적 요인들을 강조한다(이수진, 2012). Lent, Brown, Hackett(1994) 등에 따르면 개인의 환경 요인들 중 특히 부정적 환경 요인들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지각하게 되면, 직업 흥미에 대한 진로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가 진로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 요인(예: 부정적 자기개념)과 맥락적 요인들(예: 중요한 타인의 非지지)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장애대학생들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점들을 개인 내면에 어떻게 내재화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며, 맥락적 요인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인 부적응 등을 다룰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진로정보 수집하기’, ‘진로달성을 위한 할 수 있는 체험하기’가 현상을 다루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고자 하였다. 박수홍, 이창수(1990)가 진로 목표를 세

우기 전에 자아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성격, 특성, 흥미, 대인관계, 외모 등 모든 자아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진로 목표를 세워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들도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앞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로 준비를 위한 자신만의 학습법을 터득해 나갔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비장애대학생들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박주연(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예: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고,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관계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대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 준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험을 해보는 비장애학생들과는 달리 학창시절부터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으며(최광호, 2001), 체험을 통해 습득한 직무관련 지식을 진로 준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체험 학습과 같은 기회가 제한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비장애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장애학생들이 비장애대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장애와 처한 상황에 관련해서 알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국가적·학교적 차원에서 국가 근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장애대학생들도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학생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를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받아들이게 되는 장애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대학생의 시기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되어있으며, 자아정체감을 통해 자신의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비장애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장애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장애인들만이 갖게 되는 장애정체감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정체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신은경,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웅 외, 2011; 이은진, 2011)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진로탐색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 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장애 정체감이 영향을 미친다(McCarthy, 2003; Hahn & Belt, 2004)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가치란 개인이 환경에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요소이고 동기의 근원이며 개인적 성취와 전반적인 목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Spranger, 1928), 개인이나 단체의 내재적 혹은 외재적 개념으로 행동의 양식, 목표,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Kluckhohn, 1952). 그러므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나아가 직업 결정에 대해서도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Rosenberg, 1959). 특히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세계를 보는 사고 및 관점으로 개인이 직업을 영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만기, 2010). 장애정체감이 확립된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딛고도 할 수 있는 일과 안정적으로 정리해고나 일의 변동이 크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르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정체감을 수용하고 직업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비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대학생들에게 느꼈던 실망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그들과 나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구나’를 경험하고 이해하였고, 자신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경험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비장애학생들과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로를 준비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관계’에 대해서 야스퍼스(K.Jaspers)는 오직 실존의 차원에서 인격 대 인격의 무조건적인 순수한 진정한 사귄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박찬국, 2010). 즉 장애대학생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서 자신도 비장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이타심을 발달시켰다.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며 낙인이나 편견과 같은 시선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관계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고 진로 준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 증진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감수성 훈련과

연결지을 수 있다. 이장호, 김정희(1992)는 감수성 훈련을 ‘나’, ‘너’,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관한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직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비장애대학생들과의 자라온 환경이 다름과 그들과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알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낌으로써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게 되고 장애를 수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이장호, 김정희(1992)의 연구에서 감수성 훈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감정표현의 자유로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자기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획득, 타인에 대한 경청과 이해력 증진, 대인관계 형성의 적극성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 것처럼 장애대학생들에게도 감수성 훈련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에 대해서 통찰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감을 획득하고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은 진로준비과정 속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장애 정체감을 수용함으로써 직업 가치관 형성과 빠른 진로 결정을 통해 집중적이고 여유롭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임통일(2013)의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비장애대학생보다 장애대학생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을 나타냈지만, 비장애대학생들처럼 다양한 진로를 염두 해 두어 갈등하는 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부모님 혹은 중요한 타인이 권유하는 진로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로가 불일치하여 겪게 되는 외적갈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 이와 더불어 최진영, 이광호(2012)의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비장애대학생들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상경계열 우대 채용, 부모님의 생각과 불일치한 점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신체적인 불리함, 진로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스스로 부여하는 부정적인 자기개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결과적으

로 비장애학생들은 희망기업을 확장시키고 취업의 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애대학생들은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직업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한 우물 파기’와 같은 모습으로 진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비장애학생들보다 빠른 준비행동으로 인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B.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논의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 유형은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형, 자아도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집중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 준비를 해 나가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진로실현의지를 다 잡으며 기대에 찬 모습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갔고, 교수님들의 적절한 관심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 친구, 교수님들과 잦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주변의 지지원들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 들을 수 있었으며, 자신이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 준비 방법 또한 모색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장애 정체감을 수용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른 도움을 요청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을 하였고, 비장애학생들이 배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낄 줄 알았다.

‘우유부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어지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실현의지를 다 잡았으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아직은 진로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인 불리함을 더 부각시켜 보고 있어 장애정체감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원들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 볼까?’와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간 선배들을 통해 정보를 들어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업을 할까 생각

해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이 결정하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 하고, 무언가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쁘게 준비 행동을 하다가도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해 위축감, 불안감, 혼란스러움과 같은 부적응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 하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진로선택과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직업 가치관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고 이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느껴지는 부정적인 정서들에서 수용해주고 공감해고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은둔형’ 은 사회적 지지도 충분하지 않고, 자기개념도 부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가 약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여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상태이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상 자체가 위축되어 내성적이고 다양한 활동이나 대인 관계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와 집을 반복하는 생활패턴을 보여주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진로 준비에 있어서도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진로 준비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상담자부터 지지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공감해주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상담자와 함께 나누며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편견을 의식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자기개념을 변화시키고 관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주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아도취형’ 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 하지만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한 동기 부여나 진로 준비에 대한 의지가 형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성공해요’, ‘사업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와 같은 말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약해 진로 정보를 제대로 걸러 보지 못 하는 실수를 저질러 원치 않았던 자격

중 시험에 응시하기도 하였고, 진로 체험의 기회를 놓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자기 개념으로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는 이들에게는 상담자가 지지원이 되어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확한 진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과도한 자기상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대해 앞으로의 일을 구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진로 준비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안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절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여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도록 돕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이 진로 준비에 대해 집중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C.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경험 과정을 장애대학생의 내부인 관점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점질문과 심층질문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만으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과 관련된 주요 경험 내용과 과정, 유형을 탐색하고 심층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비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과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을 비교하여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 장벽을 부각시켰으며,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내·외적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외적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로 상담과 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로 상담 내용이 달리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은 지방대 4년제 소재의 대학교로서 20,000명의 학생들 중 40명의 장애대학생의 수로 아주 적은 비율의 구성되어 있는 학교의 참여자

들이었다. 이는 비교적 장애대학생 수의 비율이 많은 대학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장애대학생 연구와 달리 다수의 비장애대학생들 사이에서 장애학생들이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장애대학생의 입학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신입 장애대학생이나 현재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는 과정과 진로 준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 유형별로 어떻게 상담적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난관에 부딪혀 학생상담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장애대학생들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개입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나아가 여유로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 부정적인 시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진로 준비의 난관들을 어떻게 견디고 대처해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표집 과정에서 일부지역 4년제 장애대학생 10명만을 포함시켰고, 장애대학생의 성별과 장애유형, 장애정도가 균등하지 않아 연구 결과의 내용이 남자장애대학생과 지체 장애 6급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특수교육통계.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활. 학지사.
- 권순우, 김병하 (2003). 농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언어치료 연구, 12(1), 125-144.
-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7(2), 43-56.
- 김경희 (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933-945.
- 김남순 (2001). 장애 학생의 특례 입학과 대학시설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81-100.
- 김동연 (1999).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방안. 현장특수교육, 6(4), 8-16.
-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2011).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3), 915-929.
- 김동일, 정소라, 고혜정, 김주선, 김수연 (2013).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분석: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65-95.
- 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3). 장애청소년의 사춘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167-197.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병숙, 손민아 (2005). 진로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자기효능감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18(2), 172-198.
- 김봉환 (2007).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지각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4), 1453-1465.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상현 (2006).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연구: 진로효능감 및 진로 준비행동의 향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37.
- 김영실 (2010).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 과정.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호, 김동일 (2010). 장애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장애와 고용, 21(2).
- 김은실, 손현동 (2009). 장애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COR)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49-178.
-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461-476.
- 김정선 (200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2). 중년 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심리적 자우너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54-63.
- 김진영, 정원철 (2014).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4), 85.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3, 119-136.
- 김천우 (2001).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특수교육요구 아동연구, 9, 101-129.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 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석돈 (1999). 장애학생(직업)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금강문화사.
- 박성희 (2004). 상담학 연구방법론-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새로운 지평-. 서울: 학지사.
- 박수홍, 이창수 (1990). 대학생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 25(1).



75-93.

- 박연숙 (2000). 근거이론의 고찰. 공주문화대학논문집, 27, 299-311.
- 박주연 (2013).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국 (2010).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 집문당.
- 박한샘 (2004).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영광 (2013).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성과 낙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 (2005). 장애인의 심리적 재활과 의미요법. 교회사회사업, 3, 335-358.
- 석말숙, 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71-194.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손진희 (2010).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35-457.
- 신경립 (2001). 근거이론의 단계, *Strauss & Corbin의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서울: 현문사.
- 신경립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 신은경 (2007). 장애인의 개인 및 지원환경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7(1). 121-146.
- 심용복 (2005). 장애 대학생의 취업욕구 및 취업준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윤경 (2009). 대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와 진로상담이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담학연구, 10(3), 1555-1571.
- 원종례 (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연구, 8, 47-40.
- 유치관 (2001). 지체장애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 (2008). 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립,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중  
 복·지체부자유아교육, 50(1), 1-20.
- 이경립,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  
 식.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이동성,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  
 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만기 (2010). 대졸자의 일자리적합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경  
 영정보연구, 29(4), 245-266.
- 이수진 (2012).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경 (2003). 장애인 대학생지원의 현황과 발전 전망.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출  
 범식 및 기념 워크숍 자료집, 25-36.
- 이옥경 (2004). 장애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8,  
 169-195.
- 이용, 이주희 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연구.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 및 심리치료, 23(4), 1083-1115.
- 이장호, 김정희(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정애, 최웅용 (2010).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진로포부비교. 장애와 고용, 20(2). 107-123.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 임통일 (2013). 장애관련요인이 장애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  
 간 구조분석. 취업진로연구, 3(1). 1-25.
- 장순옥 (2001). 장애인 특례입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5(1),  
 85-108.
- 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  
 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133-150.
- 정재권, 강영애 (2004). 장애대학생의 삶의 질 실태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2), 305-325.

- 정진자, 임명희 (200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영향 변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405-430.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3(2), 15-30.
- 최광호 (2001). 전통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민속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문정 (2009). 감수성훈련이 대인관계 증진 및 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구분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연구, 11(4), 1657-1672.
- 최윤경, 김성희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고용업무현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4). 2014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고등교육 기관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세미나자료.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4), 117-12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hickering, A. W., & Reisser, L.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hubon, R. A. (1985). Career-related needs of school children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47-51.

- Daughtry, D., & Kunkel, K. A. (1993). Experience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16–323.
- Fassinger, R. E. (2005). Paradigms, Praxis, Problems, and Promise: Grounded Theory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56–166.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 Goodyear, R. K., Tracey, T. J. G.,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Hahn, H. D., & Belt. T. L. (2004). Disability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cure in a sample of disabled activ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 158–161
- Hewitt, J. P. (2000).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 Johnsen, J. A., Biegel, D. E.,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Kazdin, A. E. (1988). Childhood depression. In E. J. Mash & L. G. Terdal (Eds.), *Behavioral assessment in childhood disorders, 2*, 157–19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uckhohn, C., (195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Kiernan, W. E. & McGaughey, M. (1992). A support mechanism for the

- worker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56-62.
- Krumboltz, J. D., Mitchell, L. K. (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et al,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 Jossey-Bass.
- Krumboltz, J. D., Mitchell, A., & Gelatt, H. G. (1975). Applications of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Focus on Guidance*, 8(3), 1-16.
- Lance, G. D. (2005). Reflections on inclusion: Intergrating the disabled. *Research of Disabilities*, 1(3), 9-13.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tage Pulications.
- Livneh, H., Martz, E., Wilson, L. M. (2001). Denial and perceived visibility as predictors of adaptation to dis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6(3), 227-234.
- Martz, E. (2004). Do Reactions of Adaptations to Disability Influence the Fluctuation of Future Time Orientation Among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86-95.
- McCarthy, H. (2003).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Experience and perspectives of senior leaders in the disability commun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 209-223
- Nosofsky, R. M. (1992). Similarity scaling and cognitive process mode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25-53.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유태균 역), 나남출판사.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Development*, 80, 86–93.
- Rosenberg, M., (1959). *Occupation Values*, Glence: The Free Press. Scans Report.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Springer, New York.
- Schroeder, F. K. (1995) Philosophical underpinnings of effective rehabilitation. Sixteenth Mary E. Switzer Lectere, Assumption College, Worcester, MA.
- Spranger, E., (1928). *Type of man: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personality*, New York: Jong Reprint Corporation.
-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eces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 Strauss, A. Al.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ed). Thousand Oaks, CA: Sage.
- Szymanski, E. M., & Trueda, H. T. (1994). Classifi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otential disempowering aspects of classification in disability servic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0, 12–20.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성명	소속	연락처
책임연구자	최민정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권해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만일 본 연구에 대한 문의 및 위험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어떤 장벽들이 인식되며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최대 3회, 약 60~90분간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로준비에서 경험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음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에만 이용되고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녹음된 내용은 파기될 것입니다.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나 \_\_\_\_\_는(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인터뷰에 응할 것과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뒤에 녹음 파일이 지워질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발행되더라도 나의 이름이 연구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4. 나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질문이 무엇이든지 질문할 기회가 있고,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운 정도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앞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최민정

날짜 \_\_\_\_\_ 참여자 \_\_\_\_\_ 서명 \_\_\_\_\_